

전발연 2004-R-06

전라북도 「대형국책사업」 발굴

2004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총괄 박형창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김명룡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색 지

- 행정팀이 인쇄업체에 공지
- 목차앞에 위치

<색지뒤편>

목 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	3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 범위	3
3. 과업추진 방법	4
제 2 장 국책사업 방향	7
1. 국책사업의 예산	7
2. 중앙부처의 주요정책방향	9
3. 전라북도의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 발굴 방향	18
제 3 장 전라북도의 사업 발굴	25
제 1 절 국책사업 발굴과정	25
1. 발굴방법	25
2. 평가방법	26
제 2 절 분야별 사업내용	29
1. 문화관광 사업	29
1-1. 우리나라 남부내륙산악권 신활력지역 개발사업	29
1-1-1. 무주 : 태권도·스키 레포츠 메카	32
1-1-2. 진안 : 한방건강체험 노인휴양웰빙 메카	33
1-1-3. 장수 : 승마레포츠 메카	53
1-1-4. 임실 : 치즈산업 메카	63
1-1-5. 순창 : 전통장류 메카	73
1-1-6. 남원 : 허브산업 메카	83
1-2. 고군산군도 개발 -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	98
1-3. 변산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	111
1-4. 지역기반시설 연계 관광벨트 조성	114
1-5. 게임메카단지 조성	116
1-6. 유니버설 코리아 시네스페이스(종합영상단지) 구축사업	117

1-7.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	4
1-8.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	5
1-9. 북분자 테마관광벨트 조성	6
1-10. 고창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조성	26
1-11. 무형문화촌 조성	56
1-12. 동호 해양관광지 종합개발	66
1-13. 옥정호 일대 국민생태관광지 개발	77
1-14. 2010년 세계 생활체조대회 창립개최	27
1-15. 옥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57
1-16. 고창·부안 해상국립공원 조성	78
2. 건설교통 사업	81
2-1. 자기부상 철도사업	8
2-2. 만경강변 건강로 설치	8
2-3. 전라북도 동부권~서부권 관광순환 도로 개설	8
2-4. 국도 17호선 화산~금산간 확포장사업	89
2-5. 동서횡단철도 건설	9
2-6. 전북지역 연담도시 경전철사업	9
2-7. 동서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정읍~장수)	99
2-8. 정읍/고창/부안~지리산/남원 통합관광 인프라(LRT) 구축사업	11
2-9. 군산~중국 청도간 해저터널 건설	15
2-10. 부안 격포~위도간 해저터널 건설	18
3. 경제통상산업 사업	110
3-1. 전주~익산~군산~김제를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10
3-2.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12
3-3.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융합기술 개발사업	16
3-4.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한·중 무역클러스터 조성	122
3-5.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동북아유통정보센터 건립사업	14
4. 농림 사업	128
4-1.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18
4-2. 오릿쌀 가공 집산단지 조성	10

5. 교육복지 사업	133
5-1. 실버피아(Silverpia) 건설	㉮
5-2. 카이스트 전주캠퍼스 설립	㉯
6. 환경 사업	138
6-1. 새만금 담수호 수질 관리를 위한 실시간 원격관리 환경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138

표 목 차

<표 2-1>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8
<표 2-2>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1
<표 2-3> 농림부 주요정책의 추진일정	5
<표 2-4> 전라북도의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 발굴방향	12
<표 3-1> 발굴결과	52
<표 3-2> 국책사업 발굴 우선순위	62
<표 3-3> 분야별 우선순위	82
<표 3-4> 태권도·스키 레포츠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33
<표 3-5> 한방체험 노인휴양웰빙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48
<표 3-6> 승마레포츠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53
<표 3-7> 치즈산업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66
<표 3-8> 장류산업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73
<표 3-9> 허브산업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88
<표 3-10> 고군산도 개발 -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 투자계획	14
<표 3-11> 변산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 투자계획	34
<표 3-12> 지역기반시설 연계 관광벨트 조성사업 투자계획	64
<표 3-13> 계임메카단지 조성사업 투자계획	66
<표 3-14> 유니버설 코리아 유치를 위한 접근전략별 장·단점	53
<표 3-15> 유니버설 코리아 시네스페이스 구축사업 투자계획	45
<표 3-16>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관광객 전망	66
<표 3-17>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매출액 전망	66
<표 3-18>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경제성 전망	66
<표 3-19>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파급효과 전망	66
<표 3-20>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세부계획	85
<표 3-21>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투자계획	85
<표 3-22>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 투자계획	66
<표 3-23> 복분자 테마관광벨트 조성사업 투자계획	26
<표 3-24> 고창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조성사업 세부계획	46
<표 3-25> 고창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조성사업 투자계획	56

<표 3-26> 무형문화촌 조성사업 세부계획	76
<표 3-27> 무형문화촌 조성사업 투자계획	76
<표 3-28> 동호 해양관광지 종합개발사업 세부계획	96
<표 3-29> 동호 해양관광지 종합개발사업 투자계획	07
<표 3-30> 옥정호 일대 국민생태관광지 개발사업 투자계획	27
<표 3-31> 2010년 세계 생활체조 창립개최사업 투자계획	57
<표 3-32> 옥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세부계획	77
<표 3-33> 옥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계획	87
<표 3-34> 고창·부안 해상국립공원 조성사업 투자계획	80
<표 3-35> 자기부상 철도사업 투자계획	38
<표 3-36> 만경강변 건강로 설치사업 투자계획	78
<표 3-37> 전라북도 동부권~서부권 관광순환 도로 개설사업 투자계획	98
<표 3-38> 국도 17호선 화산~금산간 확포장사업 투자계획	92
<표 3-39>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투자계획	59
<표 3-40> 전북지역 연담도시 경전철사업 투자계획	99
<표 3-41> 동서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101
<표 3-42> 정읍/고창/부안~지리산/남원 통합관광 인프라(LRT) 구축 사업 투자계획	104
<표 3-43> 군산~중국 청도간 해저터널 건설사업 투자계획	7
<표 3-44> 부안 격포~위도간 해저터널 건설사업 투자계획	9
<표 3-45> 전주~익산~군산~김제를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투자계획	112
<표 3-46>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계획	6
<표 3-47>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융합기술 개발사업 투자계획	2
<표 3-48>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한중 무역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계획 ·	124
<표 3-49>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동북아유통정보센터 건립사업 투자계획 ·	2
<표 3-50>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사업의 투자계획 ·	3
<표 3-51> 오릿쌀 가공 집산단지 조성사업	2
<표 3-52> 실버피아 건설사업 투자계획	3
<표 3-53> 카이스트 전주캠퍼스 설립사업 투자계획	2
<표 3-54> 새만금 담수호 수질 관리를 위한 실시간 원격관리 환경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투자계획	140

그림 목 차

<그림 2-1> 신국토 골격($\pi+6$ 각형 신국토축)	11
<그림 2-2> 대책사업 발굴 방향	8
<그림 3-1> 우리나라 남부내륙산악권 신활력지역 개발 구상	9
<그림 3-2> 태권도·스키 레포츠 메카	33
<그림 3-3> 한방건강체험 노인휴양웰빙 메카	4
<그림 3-4> 승마레포츠 메카	53
<그림 3-5> 치즈산업 메카	6
<그림 3-6> 전통장류 메카	73
<그림 3-7> 허브산업 메카	8
<그림 3-8> 고군산군도 개발 -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	93
<그림 3-9> 변산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	24
<그림 3-10> 지역기반시설 관광벨트 조성	44
<그림 3-1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개요	74
<그림 3-12>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추진동기	74
<그림 3-13>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대효과	84
<그림 3-14> 게임메카단지 조성사업	84
<그림 3-15> 유니버설 코리아 시네스페이스(종합영상단지) 구축사업	15
<그림 3-16>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55
<그림 3-17>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	95
<그림 3-18> 복분자 테마관광벨트 조성	16
<그림 3-19> 고창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조성	36
<그림 3-20> 무형문화촌 조성	66
<그림 3-21> 동호 해양관광지 종합개발	86
<그림 3-22> 옥정호 일대 국민생태관광지 개발	17
<그림 3-23> 2010년 세계 생활체조대회 창립개최	37
<그림 3-24> 육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67
<그림 3-25> 고창·부안 해상국립공원 조성	79
<그림 3-26> 자기부상 철도사업	18
<그림 3-27> 만경강변 건강로 설치	53

<그림 3-28> 전라북도 동부권~서부권 관광순환 도로 개설	88
<그림 3-29> 국도 17호선 화산~금산간 확포장사업	90
<그림 3-30> 동서횡단철도 건설	39
<그림 3-31> 전북지역 연담도시 경전철사업	60
<그림 3-32> 동서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정읍~장수)	100
<그림 3-33> 정읍/고창/부안~지리산/남원 통합관광 인프라(LRT) 구축사업	2
<그림 3-34> 군산~중국 청도간 해저터널 건설사업	6
<그림 3-35> 부안 격포~위도간 해저터널 건설	8
<그림 3-36> 전주~익산~군산~김제를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1
<그림 3-37>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3
<그림 3-38>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기술융합	3
<그림 3-39>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융합기술 개발사업	1
<그림 3-40>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기술융합 사업의 SWOT 분석	10
<그림 3-41>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한·중 무역클러스터 조성	122
<그림 3-42> 동북아 유통정보센터의 기능도	3
<그림 3-43>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동북아유통정보센터 건립사업	3
<그림 3-44>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동북아유통정보센터 건립사업 추진방안	3
<그림 3-45>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3
<그림 3-46> 오릿쌀 가공 집산단지 조성	1
<그림 3-47> 실버피아(Silverpia) 건설	3
<그림 3-48> 카이스트 전주캠퍼스 설립	3
<그림 3-49> 새만금 담수호 수질 관리를 위한 실시간 원격관리 환경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38

제 1 장

과업의 개요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국책사업은 지역의 생산유발효과, 건설경기부양효과,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낙후한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사례가 많다. 전라북도가 산업화에 뒤진 이유 중 하나가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이 저조하여 SOC, 산업인프라 등을 미리 갖추어 놓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는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산업화에 상대적으로 뒤져있는 전라북도는 지금부터라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국비유치사업 및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재원이 부족한 전라북도에는 SOC 확충사업 및 잠재력을 갖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유치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다져야 한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라북도로 유인할 대규모 관광프로젝트의 국책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또한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배분을 통해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대중국 관련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하여 동북아 신산업·물류·생산 중심지 건설 비전을 구현하여 전북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의 발굴이 본 과업의 가장 큰 목적이다.

2. 과업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전역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하여 목표년도 2007년 까지 3년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며 기존 발굴 사업은 제외한 신선하고 창의적인 국책사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대상사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중앙 각 부처의 주요사업
- 지역특화 국책사업
- 대형 농·축산 국책사업
- 대형 어업육성 및 양식 등의 국책사업
- 대형 문화·관광산업에 관한 국책사업
- 과학·산업기술 국책사업
- 교통·건설의 국책사업
- 복지·여성에 관한 국책사업
- 교육사업에 관한 국책사업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유치)
- 친환경개발방안에 관한 국책사업

이 밖에도 전라북도에서 추진 가능한 대형 중·장기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과업범위를 설정하였다.

3. 과업추진 방법

먼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자하는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전라북도 전역 및 시·군별로 발굴가능분야의 국책사업을 분석하였다. 전라북도 전역 및 시·군별로 국책사업 발굴가능 잠재력을 분석하여 국책사업을 발굴하였다. 이에 맞게 전라북도의 국비유치사업 및 국책사업 발굴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라북도에 내재되어있는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고자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일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공무원, 기업인, NGO, 대학교수, 전문가 등 전라북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 2 장

국책사업 방향

제 2 장 국책사업 방향

1. 국책사업의 예산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의 예산 배정은 사업타당성이 결정되고 난 후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중앙부서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책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안을 상정하는 곳이 중앙의 관련부서이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예산수립기본방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르며 연도별로 방향이 새로 수립 된다. 그러나 국책사업의 추진은 장기적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기존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R&D·교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영유아 보육 등 성장잠재력 분야에 확충 투자할 계획이다.

둘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

셋째,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SOC분야는 민자유치 및 연기금·여유자금 등 다양한 재원이 유입되도록 조치하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넷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혁신 관련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율편성대상사업(3.3조원)을 선정하여 지자체 선호 및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원하며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 및 특성화 발전전략을 적극 지원한다.

중 분야별 재원 배분 내용은 <표 2-1>와 같다.

<표 2-1>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 억원

분야	2004예산	2005예산안	증감	증감률(%)
교육 (교육양여금 제외)	244,451 (202,069)	258,431 (218,659)	13,980 (16,590)	5.7 (8.2)
R&D	60,995	67,230	6,235	10.2
사회복지 (기금이관사업 제외)	144,279 (139,457)	155,450	11,171 (15,993)	7.7 (11.5)
SOC	168,285	170,128	1,843	1.1
농어촌	89,518	95,756	6,238	7.0
산업·중소기업 (금융성 지원, 기금전출금 제외)	63,933 (47,541)	58,946 (48,494)	△4,987 (953)	△7.8 (2.0)
환경	29,872	33,819	3,947	13.2
문화관광·체육·청소년	13,002	13,755	753	5.8
국가균형발전	50,145	54,980	4,835	9.6
사회안정	75,677	81,055	5,378	7.1
국방비	189,412	208,226	18,814	9.9
통일외교	7,198	11,455	4,257	59.1

주 : 1) 2005년도 예산안, 기획예산처, 2004.10.

2)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준

3) 지자체 이양사업(1.1조원) 제외

교육분야에 258,431억원의 예산을 배분하였다. 이는 21세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라북도도 대학연구소, 신소재개발관련분야에 대한 국책사업 및 국비유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R&D 부문에 10%의 예산을 증가시킨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지역혁신 5개년계획에 맞추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이다. 이 부문에 대한 국비유치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특히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것은 농어촌에 배당되는 예산이다. 농어촌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전라북도는 이 사업에 대한 국비를 많이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업·중소기업 예산과 국가균형발전 예산이 증가되어 이 부문에 대한 국비유치 사업과 국책사업 발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2. 중앙부처의 주요정책방향

1) 건설교통부의 주요정책방향

교통·물류혁신과 국토공간의 대변혁을 가져온 고속철도시대를 맞아 균형있는 국토를 가꾸어 나가면서 서민, 주거, 교통, 안전의 국민기초 생활 여건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 지역간 연계 발전 추진
-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 농·산·어촌의 혁신·넷 지방분산 국가 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친환경적 국토관리
- 개방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벨트 조성
- 신 국토구상 관련계획 정비 및 추진

이러한 기초아래 주요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다핵분산형 국토공간구조를 정립한다.

기존의 피라미드형 국토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평적 국토공간구조를 정립하고 해양과 내륙을 포괄하는 전략적 국토축을 설정하며 고속철 시대의 국토구조를 구축한다.

둘째, 혁신형 정주체계를 구축 한다.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계획적 추진 및 이와 연계된 국토균형발전의 선도거점으로 육성한다.

셋째, 초고속 교통·정보인프라 및 경쟁력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네트워크형 국토건설을 위한 국가기간 SOC시설을 확충하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수혜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개선을 한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여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국민주거복지의 증진과 도시의 질적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다양한 국민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와 주거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주택 및 토지의 개발이익의 환수 등 토지공개념 체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계획적 토지이용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관리한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관리를 지향하는 「선계획-후개발」 체제의 정착과 합리적인 토지구제 개혁과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공급기반을 조성한다.

여섯째,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 전방위 방재체계를 구축한다.

수자원 공급 및 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 증대하고 국토 전방위 방재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일곱째, 실용적인 글로벌 국토경영 및 남북교류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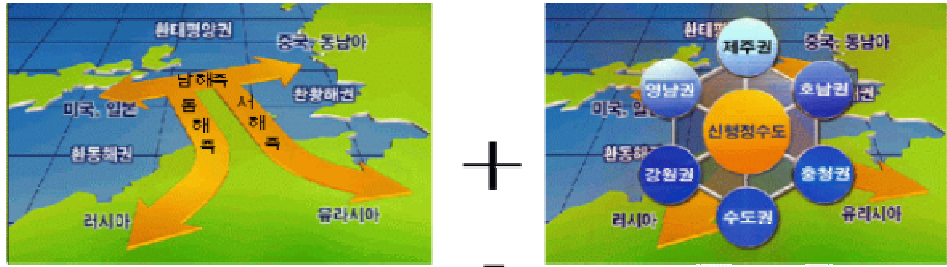
글로벌 국토경영을 위한 개방거점 확충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 실용적·상생적 경제 및 문화협력을 확대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의 실용적 평화벨트화를 구축한다.

여덟째, 국토관리의 지방분권 및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의 실질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과 자립적 지방화를 촉진하고 국토개발과 보전 행정의 협치(協治,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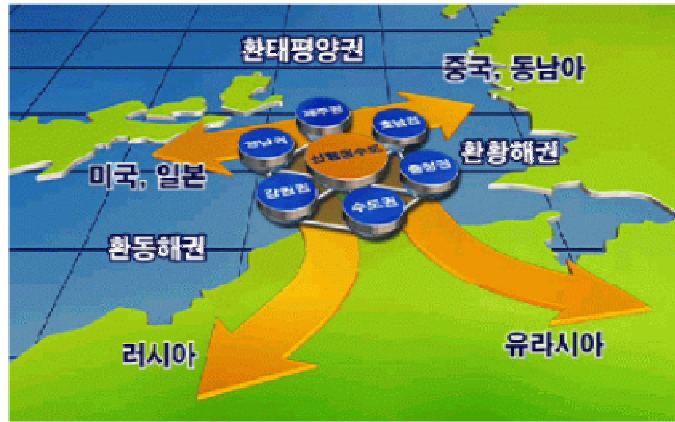
이러한 체제하에 대륙·해양·다핵·혁신이 융합된 신국토 골격($\pi+6$ 각형의 신국토축) 구현을 위해 다음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중앙부처의 주요정책방향이 남해축, 서해축, 동해축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π 형 국토축 형성(유라시아, 환태평양 진출의 관문)
-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특성화되고 권역간에 고도로 연계된 육각형(헥사곤)의 네트워크 국토축 형성
- ➡ 세계를 향한 21세기 다이나믹 코리아호의 대항해를 가능케 하며 기회를 몰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동력(動力) 역할을 담당할 신국토 골격을 구비



< π 축 >

< 6각형 국토네트워크 >



신국토 골격($\pi+6$ 각형 신국토축)

<그림 2-1> 신국토 골격($\pi+6$ 각형 신국토축)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국책사업 발굴방향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초에 맞추어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하는 다음사항에 맞추어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 발굴 방향이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국토축 형성에 부응하는 신행정수도의 관문화
- 지역간광역교통·물류체계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전통문화 중심도시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 지역자원의 세계화 실현
- 생활·복지 기반의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생태·환경보전관리
-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 지역간 공생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연계강화

전라북도에서는 SOC·물류·건설경제 부문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중심지화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도시관리·토지이용 부문에서는 국토계획의 골격에 맞춰 국토계획과 각종 개발계획의 연관성, 각 부문계획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업발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행정자치부의 주요정책방향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요소투입 위주의 발전에서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의 정책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구현하여 성장동력을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과 상호연계를 중시하는 협력적 관계유지와 지역의 역량과 선택에 기초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기존계획을 상호 연계하는 포괄적이며 나침반 역할을 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과 계획수립과정에 행정기관,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NGO 등이 모두 참여하여 정책수요를 반영한 참여적이며 수요자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는 근본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2-2>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배경	·빈곤의 악순환 ·농업중심 경제구조 ·저성장 함정	·지역간 격차의 심화 ·요소투입형 경제구조의 한계 ·저기술-저혁신 함정
계획의 특성	·행정계획 ·지자체 배제-중앙정부 주도 ·투입주도형 성장모델 ·SOC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	·법정계획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혁신주도형 지역특성화발전모델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강화

전라북도의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발굴 방향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의 사업추진과 지역혁신 5개년계획, 지역균형발전계획에 기초를 맞추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시민단체, NGO 등이 참여하는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데 정책방향을 모색해야한다.

3) 산업자원부의 주요정책방향

균형발전과 차세대성장동력의 사업 발굴을 통한 외국인 투자 제도정비를 강화하며 일자리창출을 통합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해야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기간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삼각축으로 발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특성화와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환경친화적 에너지 구조 전환을 시도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기초에 맞추어 전라북도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조업유치, 외국인투자유치와 신 에너지사업에 대한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과학기술부의 주요정책방향

과학기술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과학기술인, 기업인 및 국민의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

이러한 기초 하에 생명공학 연구지원 강화, 나노기술 개발의 육성지원체계 확충, 우주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생명공학연구소, 나노기술개발, 연구소설립 및 연구인력 육성 방안에 대한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5) 해양수산부의 주요정책방향

해양수산부의 정책기조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의 실현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항만 배후단지에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항만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환적기능에서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항만 Net Work 정비를 통해 주요 수출입 항만과 배후권역간 연계수송 확충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전라북도는 신항만개발 및 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역점을 두어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6) 문화관광부의 주요정책방향

문화관광부의 정책기조는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대응방안 모색과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적 기여와 역할 증대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데 따른 계획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를 살리는 정책으로 자생적 지역문화마련, 지역별 문화성장거점 육성, 문화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산업투자 활성화와 유통체계혁신, 양질의 콘텐츠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산업 선진화정책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투자촉진 및 규제합리화정책, 외래관광객 유치정책에 주력하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활성화 조성방안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잠재된 문화산업육성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전북지역에 잠재되어있는 소리, 서예, 영상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하여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발굴을 발굴해야 한다.

관광시설확충정책에 맞추어 현행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문에 대해 관광시설확충에 대한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발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7) 재정경제부의 주요정책방향

재정부의 정책방향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거시정책추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에 두고 있다. 특히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개선에 역점을 두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시스템개선에 선진화를 이루는 계획으로 선진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 사전 예방적인 금융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외환경변화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FTA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춰 전라북도에서는 금융시스템개선방안, FTA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의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FTA에 따른 농산물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농산물가공시설, 농가소득원마련책 등의 정책에 역점을 두어 국비유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8) 농림부의 주요정책방향

농림부의 주요정책은 WTO 체제하에 농산물개발에 따른 우리 농산물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비지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파렛트 출하, 표준하역비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물류효율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전자상거래를 민간중심으로 활성화 촉진하고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이트인증제도 및 농산물전자상거래 표준 소비자보호협약의 개발을 추진하며 농산물통합쇼핑몰(농림수산물정보센터)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이양 혹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표 2-3> 농림부 주요정책의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4)	2단계('05~'08)	3단계('09~)
◦도매시장 거래 제도 개선	제도개선사항 및 법령개정방향 확정	농안법령 개정 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선	제도개선효과 점검 및 추가과제 추진
◦공정성 제고, 유통정보 제공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불공정거래 수시 단속 실시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추진	유통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완료출하자 관리체제 정착
◦도매시장 시설 보완	가락시장 리모델링 계획 수립 도매시장 시설보완 종합계획 수립	시설보완사업 실시 시설보완 평가체계 마련	시설보완 계속 추진 부진사업 평가 및 필요시 사업 전환 추진
◦도매시장내 물류 효율화	파렛트 활용 확대방안 마련 파렛트 공동이용 지원 강화 추진	파렛트 출하율을 10%까지 확대	파렛트 출하율을 30%까지 제고 물류기계화 지원 추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추어 전라북도는 전자 농산물 유통화 사업, 농산물전자상거래 구축사업,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의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9) 환경부의 주요정책방향

환경부의 정책기조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 오염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백두대간 등 한반도 3대 생태축의 체계적 보전강화와 환경영향 사전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환경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환경사업에 대한 국책사업발굴은 환경오염총량제에 의한 환경정화처리장건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개발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10) 보건복지부의 주요정책방향

보건복지의 중점추진 정책방향은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선진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의 동북아 의료 허브화 전략으로 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전망의 내실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적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건강보험 연금 운영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전라북도에서는 동북아 의료 허브화방안과 지방분권형 복지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 발굴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1)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정책방향

교육인적 자원부는 국가발전을 선도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방분권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만불 시대의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대학교육의 연구

역량강화와 대학구조 조정을 추진하며, 과학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여 청소년 일자리 해소대책을 강구한다는 정책 기조이다.

교육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과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체계구축과 교육의 사회통합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과학영재의 체계적 육성마련을 위한 교육시설도입, 교육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연구소설립 국비지원 등에 대한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12) 정보통신부의 주요정책방향

정부통신부는 2.3GHz 휴대인터넷을 도입하고 DMB 위성/지상파 방송국허가 및 서비스를 개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와 텔레메틱스, RFID¹⁾의 기술을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정부통신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전라북도는 학계와 연계한 정보통신 연구소설립의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 발굴 방향이 되어야 한다.

13) 노동부의 주요정책방향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합법적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제 실시와 노사갈등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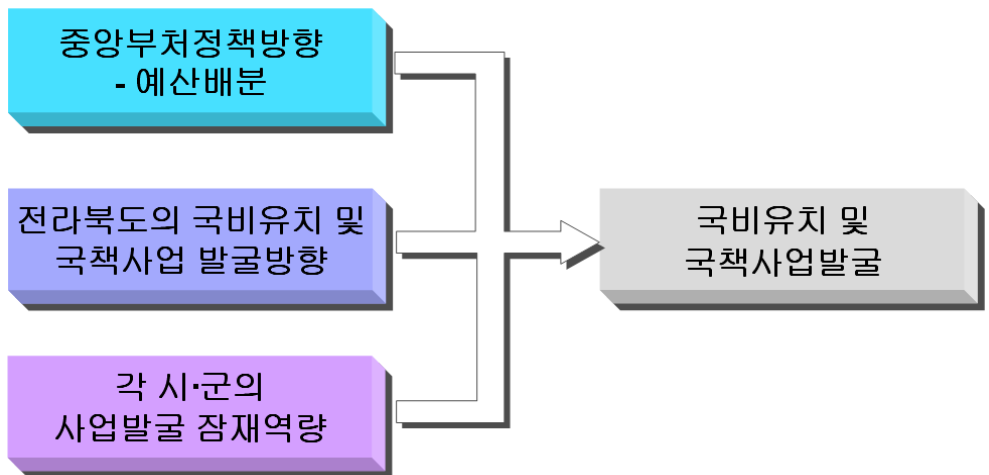
이 정책 기조에 맞춰 전라북도에서는 외국고용인 복지대책마련 사업 및 노동자 복지대책마련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국비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주파수 분배 핵심기술

3. 전라북도의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 발굴 방향

전라북도의 효율적인 국비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예산배분에 의한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 발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면서 전라북도 지역에 국비를 유치하여 성장동력의 인프라를 구비할 수 있는 SOC분야, 산업인프라분야, 과학기술분야, 농어촌 및 지역간 균형발전분야 관광분야 등의 국책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역특구특화발전과 지역혁신사업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국비유치 사업 및 대형국책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모색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전라북도의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 발굴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2-2> 국책사업 발굴 방향

건교부의 정책방향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조는 지방분산 국가 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기조에 맞추어 전라북도는 지역간, 지방간, 산업인프라조성 등 SOC 국책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물류중심지의 기틀을 다지는데 국비를 유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류단지 입지에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을 모색하고 상대적으로 SOC 시설이 부족한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의 지역간 도로확충 및 신설, 동서철도계획 등에 대한 국책사업 발굴 방

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과 새만금 주변지역의 사업 발굴은 제4차 국토수정계획과 일치하여 이 지역에 사업을 발굴하면 국비유치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 건교부를 대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기획관실과 건설교통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정책방향의 기초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있다. 이 기초에 맞추어 전라북도는 균형발전 계획에 맞추어 혁신주도형 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지자체가 경영하는데 경쟁력을 갖도록 국비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에서는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자치행정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의 정책방향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데 기초를 맞추고 있다. 이 정책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산업클러스터 조성, 신 재생에너지 단지개발 정책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제시하여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도에서는 경제통상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혁신체계에 정책기조를 두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내대학 연구소 등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연구소설립 등의 국책사업유치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역혁신사업과 연계한 대학의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 발굴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도에서는 경제통상실 과학기술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실현으로 항만개발과 항만정보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정책이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과 군장신항 확장사업과 맥락을 같이하여 국비유치에 매우 용이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전라북도와 공조체제를 이루어 적극 대처해나가야 한다. 도에서는 새로 신설된 새만금 개발지원추진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의 정책기조는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와 관광시설확충에 두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은 문화와 관광자원의 잠재력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산업개발, 관광시설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어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전역에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국비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도에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부의 정책방향은 경기활성화를 통한 거시정책추진, FTA 적극 추진 등에 두고 있다. 이러한 기초에 맞춰 전라북도에서는 경기활성화 부양사업을 전개하고, FTA 추

진에 따른 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FTA에 따른 농산물개방으로 취약해진 전북농가들의 경쟁력강화사업을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으로 발굴해야 한다. 도에서는 농림국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림부의 정책기조는 농산물경쟁력강화와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두고 있다. 농도인 전북지역은 농산물의 직거래활성화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및 신설, 농산물전자상거래구축 등의 국책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농산·어촌의 소득원 개발방안으로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 특화상품 개발에 국비유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도에서는 농림수산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환경부의 정책기조는 오염총량제 실시와 환경영향평가제 실시 등에 두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점오염원 방지를 위해 정화처리장신설 등의 국비유치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도에서는 환경보건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에서는 농어촌복지와 고령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정책기조에 두고 있다. 낙후된 농촌지역이 많고 노령화가 심각한 전라북도는 이 정책 기조에 맞추어 농가소득원마련 방안, 실버타운 및 노인휴양시설마련 등에 대한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도에서는 복지여성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육의 연구역량강화, 과학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한 국책사업 및 과학대학유치 등의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도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부의 정책기조는 DMB 위성지상파 방송국허가와 홈 네트워크 구축에 두고 있다. 이 기조에 맞추어 전라북도에서는 위성지상파 사업유치 등의 국책사업발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에서는 기획관실 정보화담당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합법적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기조에 맞춰 전라북도에서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노동력 활성화 사업, 외국인 고용에 맞는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발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도에서는 경제통상실에서 적극 추진해야한다.

<표 2-4> 전라북도의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 발굴방향

중앙부처	중앙부처 정책방향	전라북도의 신규 가능 국책사업	도 해당 실·국	해당 지역
건설교통부 (4차국토종합 계획수정 계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의 발전 - 지역간 연계발전 - 지방분산 국가 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개발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벨트 조성 - 서해축, 남해축, 동해축으로 구성되는 핵 분산화 - 다핵분산형 국토공간구조 정립 - 혁신형 정주체계 - 초고속 교통인프라 및 물류체계구축 - 도시리모델링 - 국토환경리모델링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 국토관리의 지방분권 및 국민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개발사업 - 인프라 개발 및 확충사업 - 개발벨트조성사업 - SOC 확충사업 - 환경해권 물류단지 개발사업 	건설교통국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기획관리실 전북도청 각 부서	전라북도 전역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불균형발전해소 -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 지방이 수립한 상향식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균형발전사업 - 혁신 주도형사업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 경제통상실 (기업지원)	전라북도 전역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 - 지식기반서비스사업 구축 - 에너지 구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단지 등 서비스 사업 - 신 에너지 전환 사업 	경제통상실	전라북도전역 *군산, 익산, 전주, 완주
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연구소설립 - 연구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소재개발 연구소 설립사업 - 신소재 개발 대학 건립사업 	경제통상실 (과학산업기술)	전라북도 전역 *전주, 익산, 완주, 정읍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물류중심지 실현 - 화물창출형 항만개발 - 항만 Network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항만 개발사업 - 물류단지조성사업 - 항만물류정보시스템사업 	건설교통국 (물류정책) 새만금개발 지 원추진단	전라북도 전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 지구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적 지역문화마련 - 지역별 문화성장거점육성 - 문화산업투자활성화 - 관광시설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발굴사업 - 관광지조성 및 관광시설확충사업 	문화관광국	전라북도 전역
재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시정책 - 금융시스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책사업 - 일자리창출 사업 	경제통상실 (취업지원)	전라북도 전역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경쟁력강화 - 농산물종합유통시설 확충 -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물류효율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단지개발 사업 - 농산물가공단지 사업 - 농산물 브랜드사업 	농림수산국	전라북도 전역 * 농촌산간지역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총량제실시 - 백두대간 등 3대 생태축 보전 - 환경영향사전평가제 실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화처리시설확충사업 - 오염방지시설사업 	환경보건국	전라북도 전역

중앙부처	중앙부처 정책방향	전라북도의 신규 가능 국책사업	해당 살·국	해당 지역
보건복지부	- 장애인·농어촌 복지 증진 - 지방분권형 복지시스템구축 - 고령화시대의 대책마련	- 장애인 및 노인복지사업 - 농어촌 복지사업(실버타운)	복지여성국	전라북도 전역 * 진안
교육인적자원부	- 2만불시대의 도약에 필요한 인적자원 육성 - 대학교육의 연구역량강화 - 과학인재 육성	- 평생교육강화 사업 - 지방중심대학육성사업	자치행정국 (교육지원)	전라북도 전역
정보통신부	- DMB 위성지상파 방송국허가 - 홈 네트워크 구축 - 텔레매틱스 개발추진	- 위성지상파 건립사업 - 기지국건설 사업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	전라북도 전역 * 전주,완주,익산
노동부	- 주5일 근무제 정착 - 외국인고용합법화 - 노사갈등관리	- 외국인복지사업 - 노사갈등관리대책마련사업	경제통상실 (국제협력)	전라북도 전역

주 : 1) 중앙부처의 주요정책방향을 검토하여 국비유치가 가능한 사업 제시

2)* 는 전라북도에서 국책사업 발굴요소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군 지역을 말함

제 3 장

전라북도의 사업 발굴

- 제 1 절 국책사업 발굴과정
- 제 2 절 분야별 사업내용

제 3 장 전라북도의 사업 발굴

제 1 절 국책사업 발굴과정

1. 발굴방법

전라북도에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으로 가장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관광분야, 건설교통분야, 경제통상산업분야, 농림분야, 교육복지분야, 환경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국가정책에 대한 분야별 예산 배분현황, 중앙 부처의 정책방향과 내재되어있는 전라북도의 국비유치 가능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을 발굴하였다.

각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전라북도에 적합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현상 공모는 2004.10. 1~2004.10.30까지 약 1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전라북도가 제안한 사업, 연구진 자체발굴 등 총 36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추정 사업비 규모는 약 24조 8,47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8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부안, 군산 순으로 나타났다. 발굴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발굴결과

분 야	발굴사업(건)	사업비(억원)	지 역(사군)
합 계	36	248,476	고창8, 완주6, 부안6, 군산6, 새만금4, 전주3, 전북전역2, 동부권3, 익산3, 김제2, 정읍1
문화관광	16	41,806	고창7, 부안4, 군산1, 전주1, 임실1, 완주1, 동부권1
건설교통	10	183,880	군산3, 완주2, 동부권2, 부안2, 새만금1, 익산1, 전북전역1, 전주1, 정읍1, 장수1, 김제1
경제통상산업	5	18,000	완주2, 새만금2, 전주1, 익산1, 군산1, 김제1, 정읍1
농 립	2	1,140	고창1, 군산1, 김제1, 부안1
교육복지	2	3,100	전북전역1, 완주1
환 경	1	550	새만금1

2. 평가방법

공모와 자체 발굴한 사업의 내용을 1,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1차 심사는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국가정책에 대한 분야별 예산 배분현황,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내재되어있는 전라북도의 국비유치 가능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필요성, 전라북도 적합여부, 사업계획, 사업유치방안, 실현가능성, 창조성 및 참신성 등을 총 7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하였다.

2차 심사는 도 실·국 실무자 검토에 의해 전라북도 정책과의 일치여부,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상위법관련검토 등을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하였다.

1, 2차 점수의 합계를 계량화하여 사업우선순위 결정하였고(<표 3-2>), 평가된 사업우선 순위를 분야별로 분류하여(<표 3-3>) 순위를 제시하였다.

<표 3-2> 국책사업 발굴 우선순위

추진 순위	사업명	지역별	추진년도 (기간)	관계부처
1	완주군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	완주	2005 (약 6년)	산자부
2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융합기술 개발사업	완주	2006 (약 7년)	"
3	만경강변 건강로 설치	완주	2006 (약 5년)	건교부
4	새만금 담수호 수질관리를 위한 실시간 원격관리 환경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새만금 상류	2005 (약 3년)	환경부
5	전라북도 동부권~서부권 관광순환도로 개설	전북전역	2005 (약 10년)	건교부
6	변산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	부안	2005 (약 7년)	문광부
7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한중 무역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2005 (약 3년)	산자부
8	지역기반시설 연계 관광벨트 조성	동부권	2005 (약 10년)	관광부
9	게임메카단지 조성	완주	2006 (약 4년)	"
10	유니버설 코리아 시네스페이스(종합영상관광단지) 구축사업	전주 완주	2006 (약 3년)	"
11	국도 17호선 화산~금산간 확포장사업	완주	2006 (약 7년)	건교부
12	동서횡단철도 건설	동부권	2006 (약 6년)	건교부
13	전북지역 연담도시 경전철사업	전주,익산,군산	2006 (약 7년)	"
14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동북아유통정보센터 건립사업	새만금 상류	2007 (약 7년)	산자부
15	동서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정읍~장수)	정읍 장수	2005 (약 10년)	건교부

추진 순위	사 업 명	지역별	추진년도 (기간)	관계부처
16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	고창	2005 (약 3년)	문광부
17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	임실	2005 (약 4년)	"
18	정읍/고창/부안~지리산/남원 통합관광 인프라(LRT) 구축사업	전북 전역	2005 (약 9년)	건교부
19	복분자 테마관광벨트 조성	고창	2005 (약 3년)	문광부
20	군산~중국 청도간 해저터널 건설	군산 청도	2005 (약 25년)	건교부
21	실버피아(Silverpia) 건설	전북 전역	2005 (약 10년)	복지부
22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고창	2005 (약 3년)	산림청
23	고창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조성	"	2006 (약 3년)	문광부
24	무형문화촌 조성	"	2006 (약 3년)	"
25	동호 해양관광지 종합개발	"	2006 (약 3년)	"
26	카이스트 전주캠퍼스 설립	완주	2005 (약 3년)	교육부
27	부안 격포~위도간 해저터널 건설	부안	2005 (약 15년)	건교부
28	옥정호 일대 국민생태관광지 개발	임실	2006 (약 5년)	문광부
29	2010년 세계 생활체조대회 창립대회	전주	2006 (약 5년)	"
30	육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테마파크 조성	고창	2005 (약 6년)	"
31	고창·부안 해상국립공원 조성	고창 부안	2005 (약 10년)	"
32	오랫쌀 가공 집단단지 조성	군산,김제,부안	2005 (약 3년)	농림부
*	우리나라 남부내륙산악권 신활력지역 개발사업(MLS Project)	동부권	2005 (약 10년)	문광부 건교부
*	고군산도 개발-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	군산	2005 (약 15년)	문광부
*	자기부상 철도사업	새만금, 부안,정읍	2005 (약 10년)	건교부
*	전주~군산~익산~김제를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전주,군산,익산 김제,정읍	2005 (약 10년)	산자부

* 추가사업

<표 3-3> 분야별 우선순위

분야별 순위	사업명	제안자	비고
1. 문화관광 사업 (16건)			
1*	우리나라 남부내륙산악권 신활력지역 개발사업(MLS Project)	전라북도	-
2*	고군산도 개발-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전라북도	-
3	변산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	자체발굴	-
4	지역기반시설 연계 관광벨트 조성	자체발굴	-
5	게임메카단지 조성	정광호	교사
6	유니버설 코리아 시네스페이스(종합영상관광단지) 구축사업	김 건	교수
7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	이영윤	공무원
8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	조현선	공무원
9	복분자 테마관광벨트 조성	박필재	공무원
10	고창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조성	강미란	공무원
11	무형문화촌 조성	백재욱	공무원
12	동호 해양관광지 종합개발	김이종	공무원
13	옥정호 일대 국민생태관광지 개발	김형주	공무원
14	2010년 세계 생활체조대회 창립대회	김종영	세계생활체조대회준비단장
15	육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테마파크 조성	염기남	공무원
16	고창·부안 해상국립공원조성	서현광	공무원
2. 건설교통 사업 (10건)			
1*	자기부상 철도사업	전라북도	-
2	만경강변 건강로 설치	자체발굴	-
3	전라북도 동부권~서부권 관광순환도로 개설	자체발굴	-
4	국도 17호선 화산~금산간 확포장사업	자체발굴	-
5	동서횡단철도 건설	이명재	교수
6	전북지역 연당도시 경전철사업	이정호외3	회사원
7	동서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정읍~장수)	안기선	공무원
8	정읍/고창/부안~지리산/남원 통합관광 인프라(LRT)구축사업	이정호외3	회사원
9	군산~중국 청도간 해저터널 건설	자체발굴	-
10	부안 격포~위도간 해저터널 건설	박윤근	기자
3. 경제통상산업 사업(5건)			
1*	전주~군산~익산~김제를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전라북도	-
2	완주군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	자체발굴	-
3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융합기술 개발사업	남기석	교수
4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한·중 무역클러스터 조성	임종욱	강사
5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동북아유통정보센터 건립사업	강용배	연구교수
4. 농림 사업(2건)			
1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염경선	공무원
2	오릿쌀 가공 집산단지 조성	김상철	농업인
5. 교육복지 사업(2건)			
1	실버피아(Silverpia)건설	임경탁	연구원
2	카이스트 전주캠퍼스 설립	이희용	회사원
6. 환경 사업(1건)			
1	새만금 담수호 수질관리를 위한 실시간 원격관리 환경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김상길	회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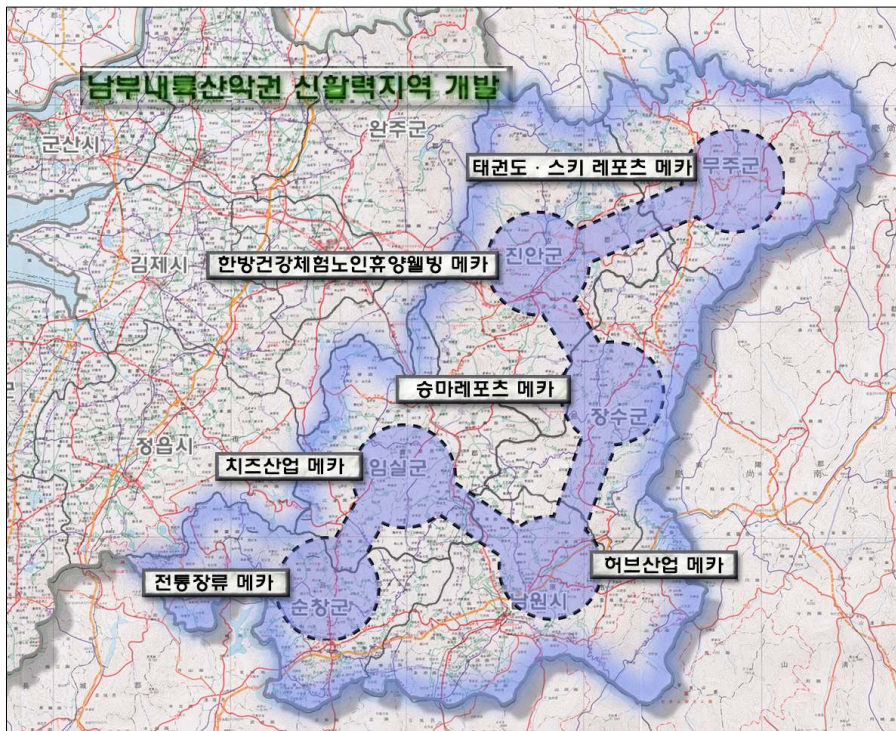
* 추가사업

제 2 절 분야별 사업내용

1. 문화관광 사업

1-1. 우리나라 남부내륙산악권 신활력지역 개발사업

- (Mountain Leisure & Sports Project)



<그림 3-1> 우리나라 남부내륙산악권 신활력지역 개발 구상

□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시도하였으나 편중개발이 지속되어 전북지역은 소외지역으로 전락됨
-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사회계층간, 지역간의 격차로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 농업부문과 여타 산업부문간의 격차가 심화됨

-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은 관광개발 잠재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취약한 지역여건으로 개발투자가 미흡함
- 따라서 이 지역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

□ 사업 SWOT 분석

- 강점
 - 산악 청정 지역이면서 한방건강자원 및 관광자원의 잠재력이 풍부함
 - 청정 산악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휴양, 체험, 학습, 스포츠 등의 기능이 지역별로 연계되어 있어 국내유일의 산악레포츠 코스와 연계한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여건과 잠재력이 풍부함
 - 호남고속도로, 대전-진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영동선, 88고속도로 등이 지나는 곳으로서 수도권과 충남,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5개도의 경계지역으로 접근성이 양호하여 관광객유치가 아주 용이한 지역임
- 약점 및 위협
 -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2, 3차 산업의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지역 존립기반 약화됨
 - 생활권분할로 통합적 중심거점기능이 미약하며 사회기반시설이 미흡함
- 기회
 - 주5일 근무제로 인한 관광, 스포츠, 레저의 수요가 증가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
 -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대규모 노인 건강 체험 및 치료센터와 휴양시설이 없음
 - 우리나라에 차별화된 산악레포츠²⁾ 시설을 구비한 관광단지가 없음

2) 낚시, 등산, 등반레프팅, 모터싸이클, 번지점프, 보트, 사냥, 산악자전거, 서바이벌게임, 스카우트, 스카이다이빙, 산악자동차, 인라인스케이트, 캠프,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등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산악레포츠휴양권(무주, 진안, 장수)
 - 무주 : 태권도스키 메카
 - 진안 : 한방건강체험 노인휴양웰빙 메카
 - 장수 : 승마레포츠 메카
- 건강체험휴양권(임실, 순창, 남원)
 - 임실 : 치즈산업 메카
 - 순창 : 전통장류메카
 - 남원 : 허브산업 메카

- 이 두 권역을 차별화된 체험의 관광코스와 시설로 집적하고 이를 하나의 루트로 연계한 “우리나라 남부내륙산악권 신활력지역 개발사업 ; Mountain Leisure & Sports Project” (MLS project)를 추진함(지역별 사업 내용은 1-1-1~6 참조)

○ 사업추진방안

- MLS project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해소하고 산간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개발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지역의 장점을 살린 산악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환경단체와의 불협화음이 없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국비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제 3섹터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바람직하며, 중앙의 농림부, 산업자원부,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각 시·군관계자들로 구성된 MLS Project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함
- 본 사업의 상위 관련법의 제약여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시책 및 지역특화특구 발전계획, 도내 지역간 불균형발전 해소 정책과 일치하나, 산악레포츠 지역을 개발하는데 환경훼손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경관보존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개발 방안을 제시하면 상위 관련법의 제약을 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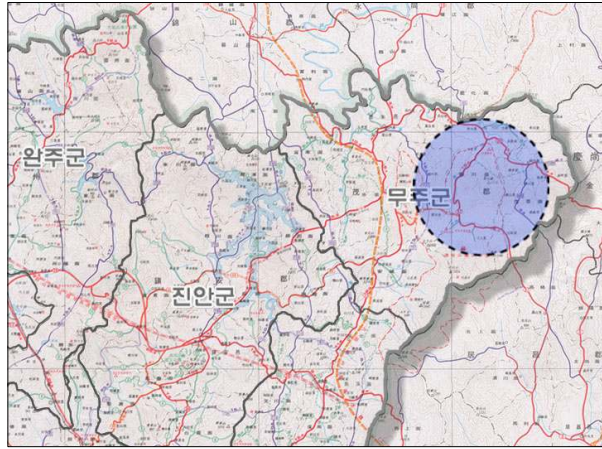
○ 투자계획

- 무주의 태권도 공원사업은 국비가 확정되었으며, 장수의 경주마 육성목장도 민자투자가 확정되어 추진 중임
- 진안의 한방건강체험 노인휴양웰빙 센터의 설립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비확보가 용이하며, 임실의 치즈산업도 현재 민간사업자가 유가공 제조업을 하고 있어 민자유치가 용이한 사업임
- 남원의 허브산업은 국비와 민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함

1-1-1. 무주 : 태권도·스키 레포츠 메카

□ 세부 추진계획

- 무주 반딧불이 청정자원과 관광자원을 최대한 살려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레포츠 개발사업을 추진함
- 무주리조트는 스키 및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 동계스포츠메카로 조성하는 데에 유리하다. 특히 1997년 세계동계유니버시아대회를 개최하여 동계스포츠 이미지와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함
- 무주군 설천면 무주구천동 일대에 심신단련 태권도 수련코스 개발하여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마을을 조성하여 전 세계의 태권도인이 정착하고 살수 있는 터전을 마련함
- 태권도 보급과 국위선양에 공로를 쌓은 사람들의 안식할 수 있는 태권도인 성지(묘지)와 태권도의 국내외경기 및 세계대회개최, 태권도 운동에 필요한 각종 스포츠용품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무주가 전 세계의 태권도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2> 태권도·스키 레포트 메카

<표 3-4> 태권도·스키 레포트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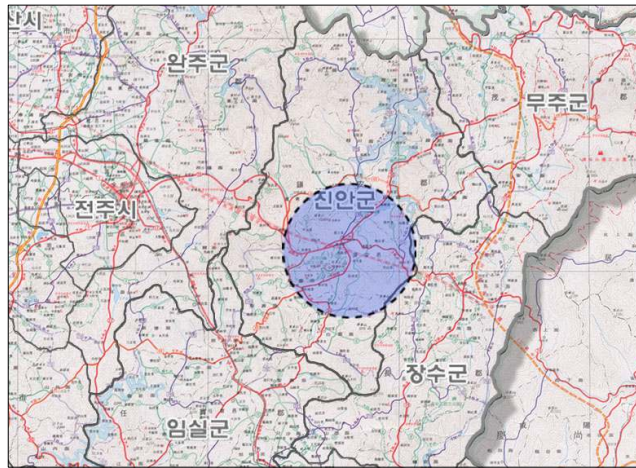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2007년	2008~2013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사 업 비	총계	5,780	50	1,496	4,234	약 9년
	국비	1,644	50	250	1,344	
	도비	100		50	50	
	시,군비	80		40	40	
	민자 등	3,956		1,156	2,800	

1-1-2. 진안 : 한방건강체험 노인휴양웰빙 메카

□ 세부 추진계획

- 진안은 인삼을 비롯한 각종 한방약재 및 기(氣)치료에 명성이 있으며, 건강에 좋은 각종 산나물이 풍부한 지역임
-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전통한방약재를 사용하여 건강체험 휴양촌을 건립
- 노인들이 대단위로 기거할 수 있고 한방을 이용한 건강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고, 회봉 온천수를 활용하여 주변에 대단위 노인휴양웰빙타운을 조성함

-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노인 스포츠시설과, 가족들이 며칠씩 머물고 갈수 있는 콘도건설 등을 통해 이 지역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규모 노인휴양웰빙타운의 메카로 조성함
- 건강식품(홍삼, 한방약재 등)을 이용한 한방치료센터건설, 마이산 정기를 받은 기치료센터 등을 건립하여 전통의학의 메카로 조성함
- 용담댐 주변의 건강심신단련 코스를 개발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체험 레포츠코스 및 시설을 도입함



<그림 3-3> 한방건강체험 노인휴양웰빙 메카

<표 3-5> 한방체험 노인휴양웰빙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2007년	2008~2010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사 업 비	총계	1,800	50	600	1,150	약 6년
	국비	500		200	300	
	도비	100		100		
	시,군비	100	50	50		
	민자 등	1,100		250	850	

1-1-3. 장수 : 승마레포츠 메카

□ 세부 추진계획

- 45만평 규모의 우리나라 내륙의 유일한 경주마 육성목장을 매개체로 국제 승마장을 건설하고 국내 최초의 경주용 크로스 컨추리 개발 등 말의 메카로 육성함
- 말 산업과 연계하여 휴양 레포츠 단지를 병행 추진하여 전국 어디에도 없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고장으로 육성함
- 경주마육성 목장을 주변으로 승마 공원조성, 동부권 일대에 승마를 타고 유람할 수 있는 산악승마 레포츠 코스개발, 승마 및 경주마관련 모든 시설을 집적하고, 장안산을 중심으로 산악 사이클 코스를 개발함
- 이와 연계한 장수사과단지 등을 활용하여 주말체험관광지를 조성하고 말의 메카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주민소득과 직결 되도록 함



<그림 3-4> 승마레포츠 메카

<표 3-6> 승마레포츠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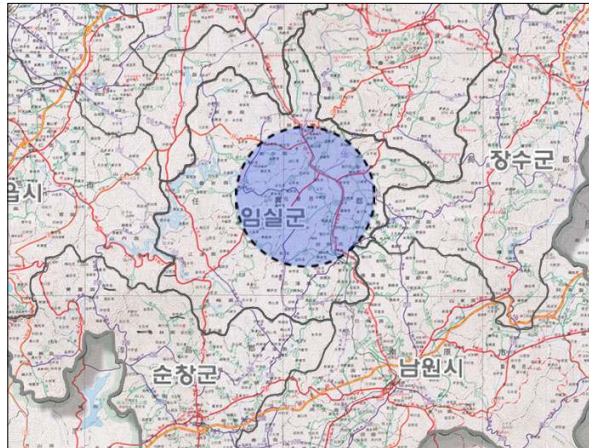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2007년	2008~2010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사 업 비	총계	2,000	100	550	1,350
	국비	500		150	350
	도비	250		75	175
	시,군비	250	100	75	75
	민자 등	1,000		250	750
					약 6년

1-1-4. 임실 : 치즈산업 메카

□ 세부 추진계획

- 임실은 롯데우유의 산업자원을 활용하여 대단위 유가공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우유, 치즈, 햄, 등 유가공식품을 총망라한 제조업을 육성함
- 유가공 기자재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유가공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생산업체유치, 기술연구단지 유치 등 유가공 기계산업 단지를 조성함. 유가공 산업인력교육시설을 유치하여 목장, 기계, 연구 등의 인력을 양산함
- 신평 일대에 대규모 목장을 조성하여 체험목장관광지조성, 그린테마단지 등 유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치즈산업의 메카로 특화함



<그림 3-5> 치즈산업 메카

<표 3-7> 치즈산업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2007년	2008~2010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사 업 비	총계	1,750	100	520	1,130	약 6년
	국비	500		300	200	
	도비	100		20	80	
	시,군비	100	50	50		
	민자 등	1,050	50	150	850	

1-1-5. 순창 : 전통장류 메카

□ 세부 추진계획

- 순창군의 장류산업 집적화를 통한 장류클러스터 조성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 원동력 창출의 기틀을 마련함
- 대규모 장류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과 판매가 직접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혁신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소득의 증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 장류연구소를 활성화하여 장류를 활용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고, 장류 체험관과 전통장류 그릇제조단지를 건립해서 관광객들에게 장류의 제조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교육의 장으로 제공함
- 강천산에 대규모 산림체험휴양촌의 건립과 회문산 주변에 경관림 및 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과 장류산업이 어우러지는 순창군으로 발전시킴



<그림 3-6> 전통장류 메카

<표 3-8> 장류산업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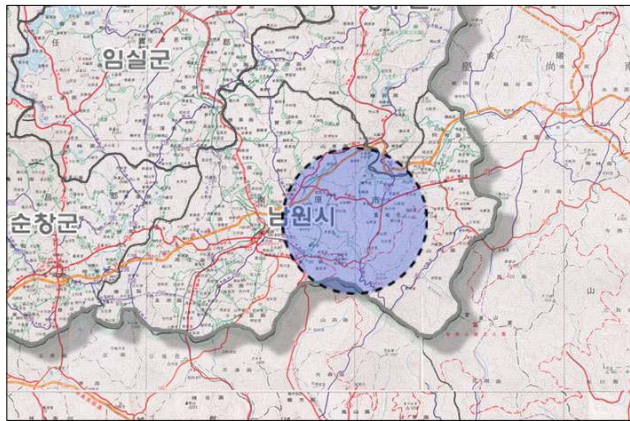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2007년	2008~2010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사 업 비	총계	1,900	50	670	1,180
	국비	500		200	300
	도비	100		20	80
	시,군비	100	50	50	
	민자 등	1,200		400	800

약 6년

1-1-6. 남원 : 허브산업 메카

□ 세부 추진계획

- 지리산 운봉일대에 우리나라의 제1의 허브생산단지 및 식물원을 조성하여 허브의 질을 높이고 대량화함
- 허브전시관 및 상품관, 허브 미로마을 등의 조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টে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함
- 허브연구소를 건립하여 각종 허브관련 치료상품을 개발하고, 허브건강타운, 허브관련 건강 체험레저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리산일대에 대규모 허브벨리를 조성함
- 지리산 일대에 대규모 산악레포츠단지를 조성(익스트림 철인경기코스)하여 남원을 관광산업과 허브산업이 어우러진 허브산업의 메카로 개발함



<그림 3-7> 허브산업 메카

<표 3-9> 허브산업 메카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2007년	2008~2010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비	총계	1,770	150	440	1,180	약 6년
	국비	500		250	250	
	도비	100		20	80	
	시,군비	150	50	20	80	
	민자 등	1,020	100	150	770	

1-2. 고군산군도 개발 -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21세기 뉴관광패러다임의 변화로 세계관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속에 국제관광객수가 1994년 5억 5,300만명에서 2003년 6억 9,400만명으로 신장함
- 이러한 성장추세에 따르면 국제관광객수가 2010년에는 10억명, 2020년에는 16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³⁾
- 국내 관광시장환경은 주5일 근무제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 등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해야 할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관광객들은 소극적인 관광활동형태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및 체험형 관광활동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관광객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됨
- 따라서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의 새만금방조제 관광자원,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영상테마파크,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관광자원, 무주의 종합휴양리조트, 남원의 춘향테마파크와 지리산 등과 연계한 전라북도의 해양관광거점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그림 3-8> 고군산군도 개발 -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

3) 세계관광기구 전망

□ 사업 SWOT 분석

○ 장점 및 기회

- 국가의 균형발전과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계획으로 문화관광산업의 대규모 개발 여건 조성
- 주변에 연계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호남고속철도,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접근성 양호
-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와 체험관광에 대한 관심 고조

○ 약점 및 위협

-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단체와의 마찰이 있음
-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함

□ 세부 추진계획

- 고군산군도를 환경친화적인 해양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창출,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조성해야 함
- 따라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일대 약 6,820km²의 면적을 대상으로 산림휴양기능, 노인휴양기능, 교육문화기능, 관광위락기능, 휴양레저기능, 해양스포츠체험기능 등을 조성함
- 산림 및 노인휴양기능으로는 산림휴양림, 노인휴양촌, 피싱빌리지, 유스호스텔, 유람선선착장, 관문랜드마크타워, 산악트래킹, 마리나 센터, 주차장 등을 도입함
- 교육문화 및 관광위락 기능으로는 전망대, 관광호텔·컨벤션센터, 아쿠아리움, 습지생태박물관, 오토캠핑장, 콘도미니엄, 생태공원 및 광장, 해양교육박물관, 자전거 전용코스 등을 도입함
- 휴양레저 및 해양스포츠체험 기능으로 워터프런트공원, 비치하우스, 수상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수상호텔, 전망대/낙시터, 펜션형빌라, 해양수련원 등을 도입함
- 이 사업의 추진은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국 산하에 “고군산도 개발 - 군산국제 해양관광지 개발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재원

조달방안, 개발방식, 단계별 사업계획 등의 추진 전략을 수립함

- 민자유치가 용이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인 투자 방향을 세워 외국자본 및 대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냄
- 상위 관법법의 제약 여건은 없고 문화관광부의 관광연계사업에 부합하며, 제4차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

<표 3-10> 고군산도 개발 -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05~2006년	2007~2010년	2011~2020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및 기본설계	기반시설공사	관광시설 및 완공	
사업비	총계	6,010	71	1,900	4,039
	국비	1,290		1,030	260
	도비	275	71	102	102
	시,군비	275		138	137
	민자 등	4,170		630	3,540
					약 15년

1-3. 변산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부안의 변산반도국립공원은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철도(신태인~부안)가 지나가는 곳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함
- 특히 서해안 관광지개발 평가에서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서해안 관광거점지역으로 발전잠재력이 아주 우수함
- 새만금 방조제와 외변산해안가와 연계하여 해양레저, 해양문화, 해양교육 등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고군산군도 개발 - 군산국제해양관광지와 연계하고 외변산의 격포~모항~곰소항을 잇는 해안 지역에 유스호스텔, 포스트빌지, 향해체험관, 컨벤션센터, 어촌체험관 등의 시설을 도입하여 이 일대를 해양종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함
- 이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내변산 변산온천~직속폭포~월명암~내소사와 연계한 관광코스와 고창선운사~고인돌군~정읍내장산 등과 연계하는 관광코스가 마련

되어 전라북도의 서해안 관광 메카로 육성함



<그림 3-9> 변산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

□ 사업 SWOT 분석

○ 장점 및 기회

-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음
- 서해안의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 해양체험 거리가 많고, 사업성이 있어 민자유치에 아주 용이함
- 서해안 관광개발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 때의 기회를 살려 세계최대의 새만금 방조제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약점 및 위협

-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개발에 따른 환경단체들의 반발 예상, 국립공원과 인접하여 개발에 한계가 있음
- 전남 영암, 해남지역에 대단위 관광레저단지가 개발됨⁴⁾으로 해서 이 지역을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선점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4) J project 로 전남 영산강 간척지 Ⅱ·Ⅲ 방조제 간척지역을 300~500만평 규모로 대단위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한다고 문광부 장관 발표, 2005.1.17.

□ 세부 추진계획

- 서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국고지원을 적극 검토함
- 관광진흥법 등에 의한 개별법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보조금 법률에 의한 지방비 비율분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부안군에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와 개발타당성 및 당위성 논리마련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
-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 내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해 나감
-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부안군에게 전권을 위임하여야 하며, 중앙의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감.
- 상위법적제약여건은 없으며 문화관광부의 관광연계사업에 부합하며, 우리나라 제4차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표 3-11> 변산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7~2011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타당성검토 및 토지매입	사업시행 및 사업완료	
사 업 비	총계	3,246	324	2,922
	국비	1,623	162	1,461
	도비	650	65	585
	시,군비	323	32	291
	민자 등	650	65	585

약 7년

1-4. 지역기반시설 연계 관광벨트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WTO와 FTA체결로 이어 온 농업정책의 구조화로 농업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 지고 있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등 특히, 오지마을의 경우는 농촌생활의 불편함으로 지역의 존립마저 위태로움
- 이를 적극 타개하고 지역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화산면과 경천면에 소재

한 경천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경천저수지는 행정구역상 완주군 화산면과 경천면 지역에 위치한 저수지로서 주변에 대야댐과 대둔산 도립공원, 천등산, 연석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있고, 충남 논산시, 대전시, 전주시, 익산시와 인접된 지역으로 주말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생태체험 활동과 여가 활동 등 가족 동반 먹거리 소비를 위한 내방객들로 지역유동성이 활발한 지역임
- 화산과 경천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완주군에서도 오지지역으로서 문화적 혜택과 경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나 화산의 경우는 한우 생산과 붕어잡으로 음식과 축산이 특화된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완주 8품, 8미 중에 하나로 관광 상품화가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대야호반 유원지, 대둔산도립공원, 운주 옥계천, 진안 용담댐, 고산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도로 확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과 레저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0> 지역기반시설 관광벨트 조성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경천저수지는 1급수의 깨끗한 물이 담수된 저수지로서 인근 도시민들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 주변에 화산붕어찜 향토음식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음
- 붕어찜을 선호하는 기호층의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속에 있으며 주변에 자리한 고성산과 퇴계성당을 연계한 관광상품화와 경천지역의 생태자원화 사업으로 생태체험과 먹거리로 지역혁신화를 위한 지역 여건이 완비되어 있음
- 대야호반 유원지, 대둔산도립공원, 운주 옥계천, 진안 용담댐, 고산자연휴양림 등 주변 지역에 위치한 관광자원들이 산재해 있어 경천저수지 주변개발사업과 연계된 관광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함

○ 약점 및 위협

- 저수지 주변개발을 이용한 관광자원화를 통한 개발이익으로 지역발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저수지내 다양한 레포츠 체험장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관광객이 머무르고 찾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수지 담수량의 일정부분이 상시 유지되어야 하나 갈수기나 농번기시 농수이용에 따른 저수량의 감소로 주변지역 내방객을 유인할 수 있는 주변 경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원 이용의 한계성이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경천저수지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향토자원을 이용한 지역 혁신 및 낙후지역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을 지역 정치권과 연계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제기함
- 본 사업은 상위법적제약여건은 없고 문화관광부의 관광연계사업에 부합하며, 우리나라 제4차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표 3-12> 지역기반시설 연계 관광벨트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2014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사업시작 및 토지매입	도로포장	레저단지조성 및 완공	
사업비	총계	510	52	152	약 10년
	국비	255		102	
	시,군비	102	52	20	
	민자 등	153		30	

1-5. 게임메카단지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와 타 도시와 비교해 취약한 경제구조의 전라북도는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수익모델이 부재한 상태임
- 정부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디지털컨텐츠 산업 선정·육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시점에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며, 게임·모바일 콘텐츠는 고부가가치의 사업임
- 국제적인 여건과 전망
 - WTO체제 발족으로 일체의 무역규제가 없어지고 2004년까지 관세화하게 됨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
 - 동북아지역이 이제는 세계 주요 경제권의 하나로 등장하고, 중국 동해연안과 한국 서해연안으로 이루어진 환황해권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환황해권 생산·물류의 전진기지』로 설정, 전주·군산·익산지역을 서해안 신산업지대망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전주 영상산업 수도화, 신 개념의 군산자유무역 지역 조성, 익산을 중심으로 니트 산업메카화 추진 등 전주·군장광역권을 신산업의 요람, 정보의 거점, 동북아 교류의 중추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국내의 여건과 전망
 - 서남해안에 위치한 전라북도는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장점과 정부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디지털컨텐츠 산업 선정·육성에 대한 계획안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에 더없이 좋은 기회임

- 내용에는 핵심원천기술개발에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을 확보, R&D 시스템의 민간주도형으로 정착, 핵심원천 기술력의 고급인력을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방의 지역별 특성화 관련기관을 선정 및 지역별 산업의 기반을 조성 등이 있음

<그림 3-1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개요

<그림 3-12>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추진동기

○ 기대효과

- 사업 유치로 전라북도는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 마케팅 역량을 강화함
- 외화 획득과 세계 시장을 유치하여 고부가 가치 전문 인력을 배출⁵⁾함

5) 전문 인력 양성 체제 구축

- 또한 차세대 게임 응용 기술을 지원하고, 게임 파크 유치로 외화를 획득함
- 세계적 게임 산업 육성에 따른 게임 문화 진흥 추진, 지역 산업 인구의 증대 와 전라북도의 인식 재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3-13>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대효과

- 따라서, 완주군에 게임개발연구소, 게임지원센터, 게임창업보육센터, 게임과학대학과 게임관광파크, 개발지원센터, 게임기술원 등이 어우러진 대단위 ‘게임메카’를 조성함



<그림 3-14> 게임메카단지 조성사업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전통적인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풍부한 콘텐츠 보유로 상호 연계성 극대화 함

- 완주군민의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탈바꿈 희망 의지가 강하고 완주군 운주면의 한국게임과학고의 설립으로 풍부한 인재 양성의 기반 확립함
- 완주군 게임 밸리로의 지정과 정부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으로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함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으로 주변 상품시장의 대폭 확대와 국내 게임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평가가 높음

○ 약점 및 위협

- 저렴한 산업용지 및 개발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기반 시설과 자원이 열악하여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회피함
- 문화 콘텐츠의 기능이 열악하여 다양한 첨단 놀이 문화 시설의 없고, 경제 여건 및 고용 문제가 여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함⁶⁾
- 1차산업의 종사자가 전체 산업 종사자의 25.9%를 상회하는 비효율적 취업구조와 완주군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중국의 콘텐츠 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서구 사회의 전통적인 강세
- 타 시도의 유사사업과의 경쟁과 지속적으로 전북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 게임개발을 위한 게임개발 연구소를 건축, 창업보육센터, 게임 개발 지원센터를 건축하고 한국 게임과학 고등학교와 유기적 관계를 통한 협력 체제를 구축함
- 더불어 게임 개발 연구소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게임 콘텐츠 개발 지원을 활성화 함

○ 2단계

- 게임과학대학, 게임파크 건축을 통해 게임 파크 단위 대단위 단지를 조성함

6) 전국 시도 1인당 평균 GRP의 82.4% 수준

- 3단계
 - 첨단게임기술 연구소 건축, 벤처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게임시티 구축사업을 추진함
- 본 사업은 지역혁신 5개년사업과 일치한 혁신사업으로 국비유치가 용이하며 상 위관련법의 제약 여건은 없음

<표 3-13> 게임메카단지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게임개발연구소 창업	과학대학게임파크조성	게임개발연구소 설립	
사 업 비	총계	600	120	240	240	약 3년
	국비	300		150	150	
	민자 등	300	120	90	90	

1-6. 유니버설 코리아 시네스페이스(종합영상단지) 구축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전라북도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김제공항사업 등에 탄력적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현재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 물적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국책사업이 요구됨
- 현재 정부는 광주에 문화를, 부산에 영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상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전주시는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부안군은 ‘영상테마파크’ 및 ‘성용 이순신 촬영 세트장’을 건립하여 전라북도 최적의 종합영상단지로서의 매력을 갖추고 있음- 영상문화관광 관련 국책사업이 절실히 필요함
- 부안에 영상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음
 - 현재 부안에는 부안군과 전라북도, 방송미술 전문회사인 KBS아트비전이 공동출자하여 4만 5,000평 면적에 총 사업비만 19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임

- 국내 최대 매머드급 종합영상산업단지로 2005년 그 모습을 드러낼 부안영상테마파크는 부안의 관광자원과 결합, 새로운 형태의 영상관광도시로 부안을 'Boom-Up'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음
- 부안군이 발표한 부안영상테마파크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접 유발금은 330억, 간접유발금 288억, 부가가치유발금 309억원, 1,052명의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되고 있음⁷⁾
- 또한 KBS 창사 77주년 기념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유치로 '영상관광타운, 부안'이란 이미지를 극대화함
- 2004.4.22일 '불멸의 이순신' 촬영이 시작되면서 제작 및 세트장 조성사업에 1만 7,000여 명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한 식비, 숙박비,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 총 13여 억원의 주민소득 향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됨. 또한 '불멸의 이순신' 제작발표회 이후 8,0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았음
- 이순신 드라마의 제작은 총 제작비 350억원으로서 사극 드라마 제작역사상 최고 제작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지난 4월 22일 제작발표회 이후 순조로운 제작에 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첫 방송을 시작으로 1년간 100회를 방영할 계획임
- 또 다른 사업으로 '생명문화를 보다'라는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열리는 제 1회 부안영화제가 2004.8.12-8.14(3일간)에 개최됨



<그림 3-15> 유니버설 코리아 시네스페이스(종합영상단지) 구축사업

7) 「바람의 도시 부안」, 2004 여름호에 기재됨

- 따라서 대하드라마 유치 및 부산영화제 개최와 부산의 천혜의 자원인 관광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의 시점에서 부산을 종합영상관광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됨. 이에 따라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및 종합영상 단지 구축과 부산의 천혜의 자원인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부산을 종합영상관광 도시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청정 무공해 지역으로서 영화 로케이션 서비스 최적지이고 10여개에 이르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소규모영화제 개최 및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지임
 - 지역내 ‘문화의 집’이 활성화되어 있고 문화예술적 감수성 풍부함
 - 지역 전문영화인 및 지자체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있음
 - 전통문화와 문화예술자원이 풍부하고 전라북도가 지역특화전략산업으로 영상산업을 추진함
 -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추진의지⁸⁾가 강하고 영상산업 추진의 영화사적 타당성⁹⁾ 및 주5일근무제 도입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 약점 및 위협
 - 인력, 기술, 자본이 부족하고 제조업의 인프라 취약 및 시장규모가 협소함
 - 영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재정자원이 취약하여 영상산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영상문화에 대한 선점의 기회 놓치게 되어 문화는 광주에, 영상은 부산으로 선점을 빼앗길 수 있음
 - 부산, 부천에 비해 영상산업에 대한 국내의 인지도가 낮고, 전문 영상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후반제작시스템 등이 열악함

8) 「전라북도 영상산업육성 기본계획」, 2003. 9.

9) 1950년대 : 영화산업의 메카 전주,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확산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와 그에 따른 민자유치가 사업추진의 관건임.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한다면 유니버설이란 브랜드 밸류 (Brand Value)를 확보하여 국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음

<표 3-14> 유니버설 코리아 유치를 위한 접근전략별 장·단점

접근 전략	세계적인 컨설팅회사를 통하는 방법	국내 대기업에게 TFT를 제안하는 방법	직접 유니버설을 컨택하는 방법
장점	Anderson, 메킨지 컨설팅 등의 회사에 용역하여 일관성 있게 사업 추진	초기비용 절감되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초기비용이 없음 긍정적 답이 나올 경우 투자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단점	초기비용이 큼	대기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	원만한 협상도출의 어려움

- 아시아 최고의 영상관광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현재 신흥 영화관광강국으로 떠오르는 뉴질랜드와 영상관련 제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¹⁰⁾
- 따라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누구든 양국의 Gateway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신속하게 대처하여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영상교류의 전진기지로 활용을 모색하고 또한, 뉴질랜드의 국립영화학교를 유치하여 양국의 대학간의 국제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실제 200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미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시 영상위원회는 뉴질랜드 관광청과 뉴질랜드 대사와 직접 면담을 하여 협약 가능성 타진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확약하고, 후에 10월 18일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의 초청 모임에서(뉴질랜드와 한국 영화관계자 초청모임) 교류협력의지를 재확인 함. 따라서 뉴질랜드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적 네임밸류를 획득해야 함
- 해당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와 주변여건의 조성도 필요함
 - 강력한 사업추진의지와 국내의 민자유치 활발한 노력 절대적 필요하고 도의회나 시의회 등이 앞장서서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야 함

10) 2004년 7월에 한국 노무현 대통령과 뉴질랜드 수상간의 영화제작체결 논의(실무논의진행)를 통해 내년 7월내에 영상관련 제작 협약체결(MOA) 완료

- 지역언론 및 대학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 내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 조성 노력이 필요함
- 본 사업은 특화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정책과 일치하며 도의 문화관광국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비유치가 용이한 사업으로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15> 유니버설 코리아 시네스페이스 구축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계획수립 및 부지매입	종합영상단지 조성	공사추진 및 완공	
사 업 비	총계	2,300	220	1,025	1,055
	국비	1,150		575	575
	도비	230		115	115
	시,군비	230	120	40	70
	민자 등	690	100	295	295
					약 3년

1-7.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국민관광수요에 알맞은 관광자원 개발과 친환경적인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원의 개발이 필요함
- 고창 고인돌유적지는 선사시대 문화 중심지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그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큼. 따라서 고인돌 유적지를 중심으로 유적체험 전시관, 탐방로 등을 조성, 거석문화의 장으로 보전 및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주변 자연·생태 자원을 지닌 운곡지구는 생태와 선사문화 체험장으로 개발하고, 운곡댐 상류 지역은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수변공간,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변 고창읍성, 선운산 도립공원 등을 연계한 종합관광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줄포만을 가로지르는 부안과 고창을 연계하는 부창대교가 가설될 경우 개

발 잠재력은 매우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원에 고인돌 탐방로, 고인돌 모형관, 움집 체험학습장, 자연생태 하천, 자연생태숲, 한옥형 펜션 및 콘도미니엄, 가족보트장, 음악분수대, 주차공간 및 소규모 편의기능과 녹지 등이 어우러진 선사문화 유적 체험관광지를 조성해야 함

<그림 3-16>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 기대효과
 - 관광객 수효는 2006년 3,327,828명, 2024년 23,862,630명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
 - 사업 매출 및 이익은 2002년에는 매출액이 4,305백만원, 영업이익은 1,636백만원, 2026년에는 매출액이 95,438백만원, 영업이익은 370,418백만원이 예상됨
 - 사회·문화적 측면의 파급효과
 -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 인프라 증대, 관광위락 기회 증대, 옛 문화의 복원, 교육 기능 증대, 지역내 연계 관광지간 시너지 효과, 자연경관 보전 등의 파급효과 유발
 - 지역사회 측면의 기여효과
 - 주민의 소득 증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지역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 주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 경제성 분석결과, 20년간 NPV 1,492억원, IRR 16.5%로서 경제성이 뛰어나 사업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산유발효과 1,768,456 백만원, 고용유발효과 39,111 백만원, 소득유발효과 350,209 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27,545 백만원이 예상된다

<표 3-16>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관광객 전망

단위 : 명

구분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4년
고창관광객총량	3,327,828	7,756,779	14,572,538	21,247,868	23,862,630
체험관광지 관광객	332,783	775,678	1,457,254	2,124,787	2,386,263
숙박관광	66,557	155,136	291,451	424,957	477,253
당일관광	266,226	620,542	1,165,803	1,699,829	1,909,010

<표 3-17>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매출액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2006년	4,305	1,722	2,583	947	1,636
2010년	15,902	5,791	10,111	3,498	6,612
2014년	31,853	11,600	20,253	7,008	13,245
2018년	55,378	20,168	35,210	12,183	23,027
2022년	80,058	29,156	50,903	17,613	33,290
2026년	95,438	34,757	60,681	20,996	39,685
계	1,153,068	325,180	566,613	196,195	370,418

<표 3-18>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경제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편익	비용	NPV	IRR
2005년	-	4,600	-4,600	-
2006년	4,305	9,604	-9,646	-
2010년	15,902	15,228	-22,938	-
2014년	31,853	18,608	5,949	-
2018년	55,378	32,351	49,341	0.3%
2022년	80,058	46,768	104,478	12.7%
2025년	95,438	55,753	149,202	16.5%

<표 3-19>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파급효과¹¹⁾ 전망

구분	건설투자파급효과	사업운영관광파급효과	총계 (백만원)
생산유발효과	91,083	1,677,373	1,768,456
고용유발효과	974	38,137	39,111
소득유발효과	19,504	330,705	350,209
부가가치유발효과	37,969	789,576	827,545

11)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을 활용하여 특구 사업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측정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산악과 해양자원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권역으로서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고창군의 선운산도립공원과, 해수욕장, 고창읍성 등 수려한 관광자원과 함께 벨트화 추진이 전망됨
- 정부측 중심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우선 개발지역 선정이 가능함
- 전주·군산권의 도시와 연대하여 체류형 관광권에 속하며 지역 관광 수용에 따른 관광자원의 개발이 부진한 실정이었으나 서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해양 및 산악 관광자원의 개발이 기대됨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생태관광, 레저 스포츠 등 특별 목적관광 활성화에 따른 관광 기회의 증가

○ 약점 및 위협

-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계절성에 따른 관광인프라의 확충이 곤란함
- 잠재자원 개발을 위한 항만, 물류, 공항, 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과 연계 교통 체계 미비로 인한 공간 통합기능이 미흡함
- 서해안 중심축(군산권)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지역 중심도시의 거점기능 미흡
- 지속적 인구유출 및 노령화로 지역 활력 저하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이 증대함
- 주변 대도시권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간 경쟁심화에 따른 개발 역량이 미흡함

□ 세부 추진계획

○ 공간이용계획

- 선사유적 체험지구 : 고인돌 탐방로, 고인돌 모형관, 선사시대 원시인 생활상 복원으로 체험학습 테마 제공
- 자연생태 체험지구 : 수변 자연생태 자원 보전을 통한 친환경 체험 및 교육테마제공
- 휴양문화지구 : 한옥형 펜션 및 콘도미니엄을 통한 숙박기능 및 가족단위 이용

객에게 휴양기능 제공

- 편익지구 : 주차 공간 및 소규모 편의기능 제공

<표 3-20>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세부계획

용도구분	면적 (㎡)	평	비율 (%)
선사유적 체험시설지구	59,000	17,847	10.6
친환경생태 체험시설지구	293,500	67,608	40.1
숙박시설지구	28,000	8,470	5.0
휴양문화시설지구	15,390	4,655	2.8
공공편익시설지구	20,350	6,156	3.7
녹지	210,760	63,754	37.8
합계	557,000	168,490	100.0

- 사업 추진방안으로 대규모 개발 추진팀을 구성하여 지역 정치권과 연계하여 사업 당위성 설명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가고 단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대응전략을 구성함
- 본 사업의 테마체험관광지 조성은 문화관광부의 역점사업으로 국비유치가 용이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21>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2007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사업시작	시설공사 및 완공	
사 업 비	총계	667	567	약 3년
	국비	334	334	
	도비	66	66	
	시,군비	200	100	
	민자 등	66	66	

1-8.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

□ 사업의 필요성

- 섬진댐 축조로 인한 옥정호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인 댐의 정상화를 달성하고, 천혜의 경관을 지닌 옥정호의 관광개발로

낙후된 전라북도 동부 내륙권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 날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를 맞아 옥정호의 수중생물과 생태계를 보전, 복원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음
- 바람직한 댐 축조, 댐관리의 모델제시로 댐건설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임실군 옥정호 일대에 옥정호의 수중생물과 생태계를 보전, 복원하여 전 국민의 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옥정호의 경관을 이용한 생태학습지구, 물문화관, 수중생물관, 휴양단지, 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7>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전통문화가 산재하고 수려한 자연청정환경 지역임
 - 정부의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시행으로 낙후지역의 개발이 기대되고, 호남서해안·88고속도로, 호남선 고속철도와 전라선 전철화 등의 SOC가 확충됨
- 약점 및 위협
 -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2, 3차 산업의 기반이 취약함
 -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준립기반이 약화됨
 - 농도(農道)로서 WTO, FTA 등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소득기반이 약화됨

□ 사업 세부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섬진댐 정상화 차원에서 수자원 공사가 계획 중인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¹²⁾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추진해야 함
- 생태관광사업은 중앙의 사업과 일치하며 해당 지자체의 노력과 도에서는 문화관광국에서 3차 전북권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사업은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의 개발제한 규제가 해제되어야 함

<표 3-22>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2007년	2008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기본시설설계 및 사업시행	관광개발시행	개발완료	
사업비	총계	500	20	330	약 4년
	국비	250		175	
	도비	100		70	
	시,군비	50	20	15	
	민자 등	100		70	

1-9. 복분자 테마관광벨트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소득 불안정과 세계 자유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 육성이 필요함
- 이러한 시점에서 고창군의 복분자 시험장 운영 재배기술개발, 우량품종 육성,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등을 통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건강 기능성식품 개발이 필요함
- 또한 복분자주가 세계적인 명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와인프라자와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고, 복분자주 시장 한가지만으로는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2) 섬진강댐 주변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의 기본계획

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복분자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함



<그림 3-18> 복분자 테마관광벨트 조성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고창선운산복분자의 상표등록과 소비자에게 고창 선운산 복분자 원조이미지 정착
- 전국 재배면적의(전국 재배면적 1,048ha, 고창군 재배면적 484ha) 고창군 재배면적 점유 대비 46%로 높음
- 해풍과 황토에서 조화되는 천혜의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
- 복분자 재배기술개발 및 우량 신품종에 대한 연구의 추진과 다양한 가공제품(주류, 면류, 차류, 장류, 꿀 차, 환 등)의 개발
- 복분자 기능의 과학적 증명
 - 성기능 개선효과(전북대), 퇴행성 염증질환 억제(경희대), 항산화 효과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억제 물질탐색(서울대), 고품질 복분자주 개발(전북대) 등의 기능성이 연구용역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함
- 정책사업으로 선정되면 1, 2, 3차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투자로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약점 및 위협

- 소규모 주류업체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경쟁력 취약

- 전통주로 일정량 판매는 가능하지만 판매에 관한 마케팅 없이는 판매의 한계점이 있음
- 복분자가 고창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게되자 타지역(전라북도 및 고창군이외 지역)에서 재배 보급이 확대, 유사 나무딸기를 품종 도입 판매함

□ 세부 추진계획

- 고창군 선운사 일대에 복분자 생산 단지 및 경관농업지구, 복분자 와인플라자, 가공공장 등 대규모 복분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한 관광벨리지, 복분자 체험 민박마을, 주말농원 등의 복분자 테마 관광벨트를 조성함
- 본 사업은 농가소득개발사업으로 국가정책과 일치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23> 복분자 테마관광벨트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2008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사업시작	시설완성	
사 업 비	총계	500	420	약 3년
	국비	150	150	
	도비	50	50	
	시,군비	100	20	
	민자 등	200	200	

1-10. 고창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핵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화합분위기를 조성함
- 동해안에 비해 미개발 지역으로 청정지역의 특성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과급효과 극대화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함
- 더불어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서해안 지역 국토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성과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함



<그림 3-19> 고창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조성

○ 기대효과

- 본 사업은 주5일 근무제 등 관광 여건 변화에 따라 관람형 보다는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개별·가족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주변 관광자원인 선운산도립공원, 해수욕장, 온천, 고창읍성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전라북도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산악과 해양자원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권역으로서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고창군의 선운산도립공원과, 해수욕장, 고창읍성 등 수려한 관광자원과 함께 벨트화를 추진 중인 지역임
- 경부축 중심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우선 개발지역 선정 가능성이 있음
- 전주·군산권의 도시와 연대하여 체류형 관광권에 속함
- 지역 관광 수용에 따른 관광자원의 개발이 부진한 실정이었으나 서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해양 및 산악 관광자원의 개발이 기대됨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생태관광, 레저 스포츠 등 특별 목

적관광 활성화에 따른 관광기회가 증가됨

○ 약점 및 위협

-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계절성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이 곤란함
- 잠재자원 개발을 위한 항만, 물류, 공항,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연계 교통체계 미비로 인한 공간 통합기능의 미흡
- 서해안 중심축(군산권)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지역 중심도시의 거점기능 미흡
-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지역산업의 활력이 저하됨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 대도시권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간의 경쟁심화에 따라 개발 역량이 미흡할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고창군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대에 요양·휴양시설(가족호텔, 호스텔, 휴양원, 휴양센터, 진흙해수탕), 문화·체험시설(해양생태공원, 해양식물원, 수족관, 박물관, 오촌민속전시관 등), 다목적 운동장, 스포츠 센터, 골프장, 광장 등이 어우러진 송림휴양원을 조성함
- 사업은 기반시설, 요양·휴양시설, 문화·체험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크게 구분 지어 추진함

<표 3-24> 고창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조성사업 세부계획

구분	기능	시설종류	부지면적(m ²)	연면적(m ²)	비고
부지매입			1,833,000		
기반시설			1,833,000		
요양·휴양시설	관광객을 위한 박·휴식 등 휴양 및 요양 기능	가족호텔, 호스텔 휴양원, 휴양센터 진흙해수탕	75,000	22,680	
문화·체험시설	해양생태계와 육상식물에 대한 체험	해양생태공원, 해양 식물원 원예원, 수족관 박물관, 어촌민속전시관 공예단지조성	206,100	48,100	
부대시설	스포츠활동과 이용객 편의 시설 확충	다목적운동장, 스포츠센터 골프장, 중앙광장 주차장	1,552,000	10,450	테니스 농구 등

<표 3-25> 고창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조성사업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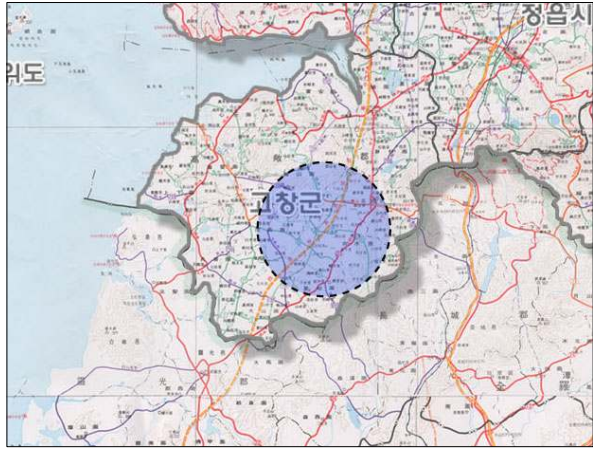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2008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의견수렴 및 타당성용역	공사추진 및 완공	
사업비	총계	2,573	14	약 3년
	국비	772		
	도비	257		
	시,군비	514	14	
	민자 등	1,030		
			2,559	
			772	
			257	
			500	
			1,030	

1-11. 무형문화촌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우리민족의 전통 생활문화의 단절과 부문적 소멸 등으로 인해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세계 문화경쟁과 세계 관광시장에서 문화여행 찾기 붐이 예상됨
- 전통문화마을을 조성하여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재창조가 필요함
- 소득생활수준 향상,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여행·레저 등의 문화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문화와 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점도시 육성과 전북 문화의 집적을 도모함
- 상호 유기적 교류·협력·보완을 통해 새로움을 탄생시켜 미래의 정신자산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생의 기회가 필요함
- 기대효과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수익 창출의 장을 마련함
 - 주5일근무제 확산과 자녀의 현장체험교육 확대 등으로 여행·레저·문화·공연·스포츠 등의 관심고조로 관광객 유치가 용이함
 - 현대사회에서 등한시 되고 있는 전통문화의 극복방안 마련과 외국인 관광객 체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음



<그림 3-20> 무형문화촌 조성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본 지역은 역사적으로 문화예술의 보고이자 현재에도 맥락을 계승하는 한국 문화예술의 보고임
- 한국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신재효가 태어나 활동하고 판소리의 이론과 사실들을 편술하여 판소리를 집대성한 고장임
-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과 고창읍성, 선운산 등이 주변에 자리하고, 서해안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음
-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과 수도권 이전기능 가능성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생태관광, 레저 스포츠 등 특별 목적관광 활성화에 따른 관광기회가 증가됨

○ 약점 및 위협

-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계절성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이 곤란함
- 잠재자원 개발을 위한 항만, 물류, 공항,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연계 교통체계 미비로 인한 공간 통합기능의 미흡
- 서해안 중심축(군산권)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지역 중심도시의 거점기능 미흡
-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지역산업의 활력이 저하됨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 대도시권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간의 경쟁심화에 따라 개발 역량이 미흡할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고창군 고창읍 일대에 체험시설(문화마을, 전시판매장, 공연장, 체험관, 전수관, 문화학교, 놀이마당 등), 주차장 및 조경 등이 어우러진 무형문화촌을 조성함
- 사업 추진방안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와 주변 여건을 조성함

<표 3-26> 무형문화촌 조성사업 세부계획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	100만평
체험시설	문화마을 조성 관 리 동	200동
	- 전시판매장, 공연장, 체험관 전수관, 문화학교 등 - 연수실, 특음실, 놀이마당	
부대시설	주차장 및 조경 등 휴양시설·각종 레저시설	

- 도의회나, 시의회 등이 앞장서서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
- 본 사업은 문화관광사업육성에 따른 정부정책에 부합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27> 무형문화촌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6~2007년		2007~2008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의견수렴 및 타당성용역 공사추진 및 완료		
사 업 비	총계	1,730	6	1,624	약 3년
	국비	865		865	
	도비	173		173	
	시,군비	346	6	340	
	민자 등	346		346	

1-12. 동호 해양관광지 종합개발

□ 사업의 필요성

- 고창지역은 동호해수욕장과 더불어 개발되지 않은 천연 자원을 갖춘 곳으로 지방어항인 동호항과 수길로에 이르는 갯벌, 골프장, 염전과 주변에 선운산도립공원, 해수욕장, 온천, 고창읍성 등을 고루 가지고 있어 해양 레포츠 체험 관광의 최적지임
- 낙후된 어촌 지역에 갯벌어업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발이 필요함
- 각종 성인병과 피부병에 좋은 것으로 입증된 고창의 특산품인 황토와 갯벌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자연의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어촌을 건설함
-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서해안 지역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천후 체험관광지로 개발이 필요함



<그림 3-21> 동호 해양관광지 종합개발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산악과 해양자원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권역으로서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고창군의 선운산도립공원과, 해수욕장, 고창읍성 등 수려한 관광자원과 함께 벨트화 추진이 전망됨

- 경부축 중심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우선 개발지역의 선정이 가능하고 서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해양 및 산악 관광자원의 개발이 기대됨
-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과 수도권 이전기능 가능성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생태관광, 레저 스포츠 등 특별 목적관광 활성화에 따른 관광기회가 증가됨

○ 약점 및 위협

-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계절성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이 곤란함
- 잠재자원 개발을 위한 항만, 물류, 공항,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연계 교통체계 미비로 인한 공간 통합기능의 미흡
- 서해안 중심축(군산권)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지역 중심도시의 거점기능 미흡

□ 세부 추진계획

- 고창군 동호해수욕장 일대에 기반시설(방파제, 물양장, 관광종합안내센터, 갯벌건강 관리센터, 수산물 종합판매시설, 해양전망대, 수족관 등), 체험시설(생태체험장, 산책로 및 광장, 어촌생태 체험전시관 등) 등이 어우러진 체험관광지를 조성하고 연륙도로(봉암~내죽도), 연륙교(동호~대죽도)개설 사업을 추진함

<표 3-28> 동호 해양관광지 종합개발사업 세부계획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기반시설	동호항 개발사업-방파제,물양장,계류장,호안등	1개소
	관광 종합안내센터 건립	1개소
	갯벌건강 관리센터 조성	2개소
	수산물종합판매시설	1개소
	해양 전망대 건립	1개소
	해양생태공원조성(외죽도)	5,000평
	수족관 및 박물관 건립	2,000평
체험시설	갯벌-어업 생태체험장 조성	10,000평
	어항대죽도 연결산책로 및 광장(주차장)포장 공사	1개소
	어촌생태 체험전시관	1개소
	체험민박촌 건립	30동
	바지락 차-종패 발생장 조성	100ha
	어촌민속전시관조성	1개소 300평
부대시설	가로수 거리 조성	18km
	연륙도로개설(부안 봉암 - 내죽도)	3.8km
	연륙교 개설(동호 - 대죽도)	1.7km

- 해당 자치단체는 개발의 당위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
- 본 사업을 서해안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시켜 국비유치를 용이하게 해야 함. 상위 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29> 동호 해양관광지 종합개발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시작	사업추진	추진완료	
사업비	총계	870	17	426	427	약 3년
	국비	261		130.5	130.5	
	도비	87		43.5	43.5	
	시,군비	87	17	35	35	
	민자 등	435		217	218	

1-13. 옥정호 일대 국민생태관광지 개발

□ 사업의 필요성

- 청정수계 섬진강의 상류로 정읍, 임실 등 2개 시군에 걸쳐 형성된 옥정호는 상수원, 발전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호수임
-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옥정호 주변을 생태관광지로 개발한다면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휴양지의 역할과 함께 해당 시군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정읍, 임실지역은 약간 남쪽이기는 하나 전북의 내륙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북 어느 지역에서든지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며 전남, 충남 등 다른 시도에서도 비교적 찾아오기 쉬운 곳임
- 수려한 자연경관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한다면 환경파괴를 벗어나서 얼마든지 생산적인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 곳임



<그림 3-22> 옥정호 일대 국민생태관광지 개발

□ 사업 SWOT 분석

○ 장점 및 기회

-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환경 조건이 우수하여 개발의 여지가 많음

○ 약점 및 위협

- 2개 시·군에 걸쳐 있어 광역사업협의체가 필요하며, 그 때문에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함
- 사회간접자본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고, 수질의 악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세부 추진계획

- 옥정호 일대에 휴양림, 삼림욕장 조성, 생태관광마을 지원육성, 놀이위락시설, 테마공원, 펜션 등의 숙박시설과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함
- 사업 추진방안으로 정읍시와 임실군의 상호협의 체계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 후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함
-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과 상호 협조하여 사업추진의 비전을 제시하고 최적사업 추진모델을 확립하여 부분 사업별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함

- 농림부 : 농어촌 소득기반확충사업 지원, 휴양림/삼림욕장 조성사업
 - 문화관광부: 생태관광마을 지원육성사업, 종합레저휴양시설 조성사업(놀이위락시설, 테마공원, 펜션 등 숙박시설)
 - 행정자치부 : 자치단체 특별지방교부금 지원(자연생태공원 조성- 야생화, 약초 식물, 식량식물, 유실수단지 등)
- 본 사업은 제3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중앙의 관광개발계획과 일치하나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전제되어야 하는 제약요인이 있음

<표 3-30> 옥정호 일대 국민생태관광지 개발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6~2010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사업착수	사업진행 및 완료	
사 업 비	총계	800	8	792	약 5년
	국비	400		400	
	도비	80		80	
	시,군비	80	8	72	
	민자 등	24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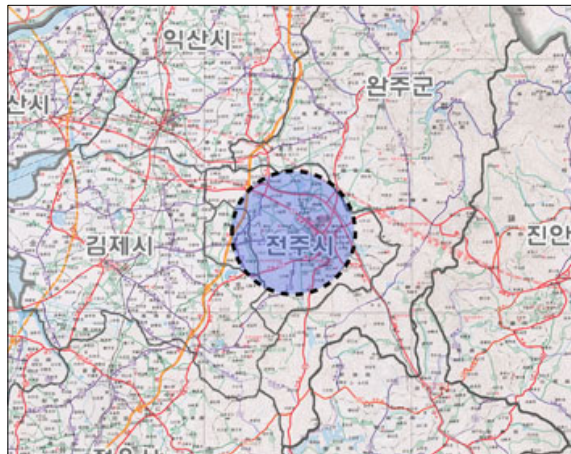
1-14. 2010년 세계 생활체조대회 창립개최

□ 사업의 필요성

- 생활체조(SAENG HWAL CHEJO)라는 것은 지금부터 22년전 (1982.3.6) 전북 전주시 진북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음
- 생활체조는 당시 취지문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건강, 국민의 화합, 국민의 문화 발전과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70년대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한차원 높은 건강·화합·문화의 제2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하였음
- 2004년 9월 18일에는 전주에서 세계생활체조대회 성공개최 준비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9월19일에는 제8회 전국 우리가락 생활체조대회를 개최함
- 기대효과
 - 2010년 세계생활체조대회 창립 개최 후 전북이 세계생활체조대회 운영본부로 향후 10년간 각종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전북에 280조 8천억원의 부대

효과가 발생하며 전북이 살기좋은 세계생활체조문화 선진고장으로, 생활체조메카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음

- 280조 8천억원의 근거로는 새평남문화 경제 연구소의 2010년 세계생활체조대회 창립개최 후 10년간 부대효과 분석 자료에 의한 것이며 그 내용을 개괄하면 전북 인구가 10년간 260만명으로 늘어나고 시군이 중간기능만 하고 전라북도가 하나의 도시가 되어, 전도민이 매일 생활체조를 20분 이상 하면 10년이 젊어진다는 것임
 - 따라서, 일생 중 10년을 더 젊게 사는 부가가치를 환산하면 1일 3만원×12월=월 90만원, 90만원×12월=연간 1,080만원, 1,080만원 ×10년= 10년간 도민 한사람이 1억 8백만원 효과, 1억 8백만원 ×도민260만명=280조 8천억원-전북 1년 예산 5조 8천억원(도 2조1천억+시군3조6천억원)-의 부대효과 유발효과가 있음
 - 세계생활체조대회 개최로 도민 누구나 생활체조를 매일 실시하여 10년 젊게 사는 건강한 삶에 대한 부대효과이며 이외에 기간산업 및 관련시설의 유치 건설, 보수, 국가수익증가¹³⁾, 30만명의 연구개발 보급지도요원 고용창출, 민간수익의 증가¹⁴⁾ 지역의 재개발효과, 대외 이벤트유치 및 각 나라 고유문화 세계생활체조화 효과, 체조문화 및 사회문화 발전의 효과, 관련산업 발전 및 수익창출 등의 효과가 있음
- 따라서 2010년 세계생활체조대회 창립 개최를 전북에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3-23> 2010년 세계 생활체조대회 창립개최

13) 관광객 직간접수입, 방송수입, 세금 등

14) 스포츠 및 관광상품, 교통, 숙박, 기타 등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나라 고유문화를 생활체조화하는 주제 프로젝트가 목적과 방향정립에 좋고 각 나라의 적극적 호응을 받으며 전통 전복문화 이미지와 부합됨
- 또한, 전복이 생활체조 창시(1982)지역으로 본 대회 유치 및 성공개최 추진에 비교적 타지역의 시비와 도전이 적고, 우리나라 생활체조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와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약점 및 위협

-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 협의회소속 전국 우리나라 생활체조연합회에서 1999년 전복연합회가 탈퇴함
- 이야기 체조를 계속 개발 보급하는 예산과 시스템이 부족하여 생활체조 국민운동의 참여와 추진의 힘이 취약함¹⁵⁾

□ 세부 추진계획

- 현재 전복 독자적으로 전국대회, 전국지도자 강습회, 생활체조회보, 교재발행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복 생활체조연합회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전국연합회의 방해와 갈등요인을 제거하고자 스포츠 댄스 등 외국체조 위주의 현 전국연합회와 별도로 “전국 우리나라 생활체조연합회”를 창립하여 우리나라 생활체조 발전과 세계대회창립을 추진함
- 새로운 우리나라 생활체조 연합회 조직, 국책사업추진, 민간 지원기구 지원 등 보다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체조가 계속 연구 개발, 보급 되도록 노력함
- 앞으로 세계대회에 따른 갈등이 없도록 세계생활체조대회 특허를 출원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 생활체조 국민운동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화가 필요하며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15) 회원 수는 전주 16,500명, 전복 28,000명, 전국 350,000명

체조로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효과 설명과 입증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함

- 훌륭한 지도자 발굴, 지도능력 계약제, 지속적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체조의 개발, 검증, 보급과 학교, 직장, 단체의 보급 추진
- 생활체조 지도 보급에 앞장 설 필요인력 양성과 2010년 세계생활체조대회 창립 및 개최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철저하게 준비함
- 본 사업은 지역의 잠재된 혁신역량의 지원정책에 부합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 여건은 없음

<표 3-31> 2010년 세계 생활체조 창립개최사업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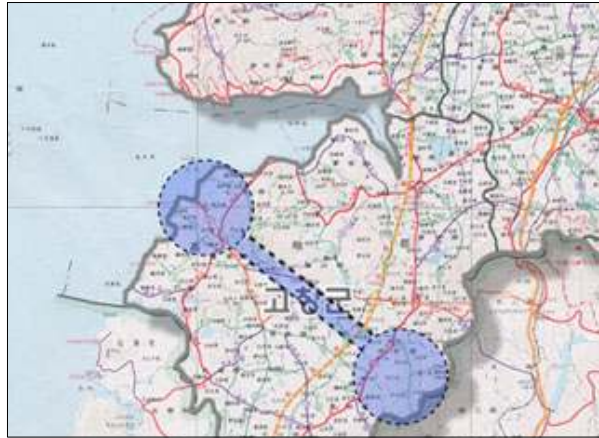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2009년	2010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계획착수	대회홍보 및 준비	대회개최	
사업비	총계	5,000	500	2,500	2,000	약 5년
	국비	5,000	500	2,500	2,000	

1-15. 육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21세기 지역의 번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성과 전통을 살린 인간, 지식, 문화, 환경에 기초한 역사문화·환경해권의 중심지역으로 부각시킴
- 고창읍성 축성 및 해양문화를 꽃피웠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여 전통 민속촌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 필요성이 있음
- 선사문화유적을 보존·전승시켜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역사적으로 고증된 읍성주변 복원 등을 통해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여유있는 관광 휴식처 및 산 교육장 제공으로 선사시대의 문화체험 및 탐방학습장으로 활용 및 보존함



<그림 3-24> 육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군과 고창읍성, 선운산 등과 연계가 가능한 체류형 관광권에 속함
- 다양한 전통문화가 주변에 산재함
-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과 수도권 기능 이전의 가능성 고조로 지역 활성화 기대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되어 생태관광, 레저 스포츠 등 특별 목적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약점 및 위협

-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에 의해 관광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연계 교통 체계 미비로 인해서 공간 통합기능이 미흡함
- 취약한 생활 여건으로 인구유출이 증가하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됨
- 주변 대도시권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간 경쟁으로 인해 개발 역량이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고창읍성 주변 및 심원 하전리 갯벌체험장 일대에 민속촌 2개소, 조각공원 조성, 민속음식촌 재현, 체험공간 및 학습공간 조성, 갯벌생태학습 및 체험의 장 등이 어우러진 민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함
- 육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고창읍성 주변 및 심원 하전 갯벌마을일원)을 조성하여 고인돌공원 등과 연계하고, 환상적인 테마여행을 유도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의 으뜸 관광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는 당위성을 홍보함

<표 3-32> 육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세부계획

전통 민속마을 조성	2개소 300개동 (고창읍성 주변 : 100개동, 심원 하전 일대 : 200개동)
토 지 매 입	100,000평(고창읍성 40,000, 심원하전 60,000)
마 을 이 주	사업구간 내 필요시
편 의 시 설	주차관리·전사·편의시설, 진입도로 신설 등

○ 사업진행

- 1단계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등.
- 2단계 : 용역시행 및 사업에 착수
 - 국토종합계획 반영(2005)
 -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05)
 - 고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05)
 - 국토이용계획변경 해제 승인 등 관련법 검토 : 2005. 12
 - 실시계획 승인 및 조성사업 허가 등 : 2006. 1
 - 민속촌 조성, 토지매입, 마을이주, 편의시설설치, 도로개설 등
- 3단계 : 민속촌 조성사업(2개소), 조각공원 조성사업, 민속음식촌¹⁶⁾ 재현, 체험공간과 학습공간 조성, 갯벌생태 학습 및 체험의 장을 조성
-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테마관광지 육성정책에 부합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16) 방앗간, 떡집, 전통다과점, 전통찻집, 엿집, 주막, 양방 등

<표 3-33> 육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의견수렴 및 공청회	용역시행 및 사업착수	공사시행 및 완료	
사업비	총계	500	5	230	265
	국비	250		125	125
	도비	50		25	25
	시,군비	100	5	30	65
	민자 등	100		50	50
					약 6년

1-16. 고창·부안 해상국립공원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남해안 일대에 산재한 해상국립공원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서해안 지역은 해상 국립공원 없는 실정임
- 고창의 해안지역은 서해안 중 해상 국립공원의 최적지로 인근에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해상 국립공원 조성 여건이 우수함
- 주변에 고창의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읍성, 고인돌 군락지, 내소사, 매창공원 등의 볼거리와 풍천장어, 복분자, 고창수박, 찞不理, 백합죽, 비자락죽, 붕어찜, 팔선주 등의 먹거리가 풍부한 곳으로 천연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많음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광주, 전주 등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남해안보다 용이함
- 따라서 갯벌체험장, 해상레포츠단지 등의 조성을 통해 자연생태 탐방, 문화유산 탐방, 해상유통로 등 체험지 및 볼거리 먹거리의 관광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3-25> 고창·부안 해상국립공원 조성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주변에 역사적, 문화적 관광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고, 그러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발로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개선됨
- 서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음
- 부창대교 공사가 완료시 파급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됨
- 생태관광, 체험학습관광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약점 및 위협

-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한 사회기반시설과 관광 기반시설이 미흡함
- 2개 군의 통합의견협의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의 조율에 제약이 따름
- 대규모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우려됨

□ 세부 추진계획

- 자연생태 탐방자원으로서 격포 수성당(동굴), 갯벌체험장(고창군 심원 하전 일

대, 부안군 해창, 대항리, 상록언포 해수욕장, 모항주변을 개발함

- 문화유산 탐방코스로 동리국악당→고창읍성→미당시문학관→향토농경유물전시관코스, 격포 수성당(용굴)→실상사→내소사→구암리지석묘→원불교제버성지→반계선상유적지 코스, 새만금 방조제→대항리 패총→금구원조각전시관→우금산성→백산성 등의 코스를 개발함
- 해양 자원으로 구시포, 동호, 격포해넘이, 고사포송림, 상록수, 모항갯벌, 위도고슴도치 해수욕장 주변을 개발함
- 사업 추진방안으로 갯벌체험장, 동굴, 문화유산(동리국악당, 고창읍성 등), 해수욕장(구시포, 동호, 격포해넘이, 고사포 등), 편리한 교통(서해안 고속도로), 천연의 먹거리(풍천장어, 복분자, 고창수박 등) 등의 관광자원이 밀집한 서해안중 해상국립공원의 최적의 장소임을 널리 홍보하여 개발 당위성을 인식시켜야 함
- 본 사업은 서해안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34> 고창·부안 해상국립공원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8년	2014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공사시작	사업완공	
사 업 비	총계	1,000	20	580	400	약 10년
	국비	300		150	150	
	도비	100		50	50	
	시,군비	200	20	180		
	민자 등	400		200	200	

2. 건설교통 사업

2-1. 자기부상 철도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세계 최대의 새만금 방조제를 중심으로 고군산군도, 변산국립공원 등 최고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특화된 관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낙후된 전라북도의 균형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에서 자기부상철도의 관광시범구간의 건설이 필요함



<그림 3-26> 자기부상 철도사업

- 자기부상열차란 전기 자기력에 의해 레일에서 일정한 높이로 차량이 떠서(부상하여) 달리는 열차로서 기존의 차량이 바퀴와 레일간 접촉력의 함수로 구동하는 방식이라면 자기부상열차는 바퀴가 없이 전기자석의 N극과 S극의 흡입력 또는 반발력을 응용하여 차량과 레일간이 떨어져 공간이 유지된 상태로 달리는 방식으로 땅과 열차가 닿지 않는 열차를 말함
- 공중에 떠서 이동하므로 레일과의 마찰이 없어서 차내 소음이 차륜식 70~80데시벨에 비해 작은 60~65데시벨에 불과하여 고속화하기 쉽고 승차감이 한결 쾌적하여 그 자체만으로 관광효과가 있음

- 자기부상열차의 최대 장점은 소음과 진동이 없는 안락한 승차감과 기존 차와 비교하여 접촉면이 축소되어 있으므로 저렴한 건설비 및 유지보수비의 절감으로 차량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건설비 절약형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어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시험 운행한 바 있음
- 이러한 시설을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여 군장인입철도(철로)~비응도(자기부상철도)~새만금방조제~야미도~신시도↔선유도~가력도~새만금복합관광레저도시~변산국립공원~호남선철도(신태인과 정읍 중간)와 연결시켜 특화된 시설도입에 의한 관광활성화가 기대됨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시범적 관광시설 도입이러는데 의의가 있고, 세계 최대, 세계최고의 시설이라는 새만금과 어울리는 차별화된 관광시설임
 - 특히 자기부상열차는 최첨단 무공해 관광 시설로 환경단체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우리나라 서해안 및 동북아의 관광시장 활성화에 따른 비교우위의 관광거점지로 정착시킬 수 있고, 자기부상열차의 관광열차시범 구간으로 세계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
- 약점 및 위협
 - 시설비 부담과 풍속 및 해일 등의 안전 문제가 있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
 - 우리나라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이 집적됨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에 비해 이 지역에 수익창출이 저조할 우려가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자기부상열차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당위성을 홍보하여 관광공사, 전라북도, 정치권, 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사업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민의 결집된 힘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함

- 본 사업은 SOC건설사업 및 관광진흥정책에 부합되며 관련상위계획의 제약여건은 없으나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도에서는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해야 함

<표 3-35> 자기부상 철도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2006년	2007~2015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타당성조사 및 설계	공사시작 및 완공	
사업비	총계	12,500	11,500	약 10년
	국비	12,000	11,500	

* 약 50km, 단가 : 약 250억/km

2-2. 만경강변 건강로 설치

□ 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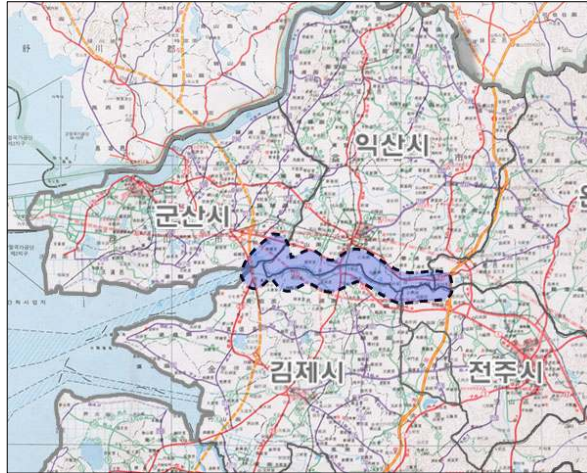
- 전라북도는 개발낙후로 인구 200만 명선이 붕괴되고, 산업기반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지역발전의 불확실성을 일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특화사업이 저조함
- 전라북도가 타 지역과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은 산업화에서 비껴서 있었던 지역기반으로 한 아름다운 산, 깨끗한 강과 하천, 음식문화, 드넓은 평야 등으로 자원의 연계와 가공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독자모델의 상품개발이 필요함
- 지난 1-2년 사이 지역발전을 둘러싼 일련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도민들간의 대립과 갈등은 지역 낙후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초래한 현상들로서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 출발을 위한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 지주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전라북도의 젓줄인 만경강 개발 검토가 필요함
- 사회적 위치를 볼 때, 생활환경의 고도화와 함께 개인별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는 있으나, 다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구성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제도적으로 주 5일근무제의 확대 시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별 욕구와 맞물려 최근 들

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웰빙(Wellbeing)문화와 상품이 구입비용에 관계없이 수요가 크게 증가되는 추세 속에서 웰빙 만을 추구하는 ‘웰빙족’이 탄생되고,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는 등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와 함께 웰빙시대를 맞이함

-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각 지역에서 동호회 중심의 생활체육 활동과 관련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며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지역마케팅이 활성화 되고 하천변을 이용한 조깅로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체육을 향유토록 시설과 공간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임
- 만경강은 도민들의 정서상 대표적인 구심력 있는 자연하천으로, 만경강 주변 건강로 설치의 일부 시군의 사업을 넘어 전라북도의 상징적 사업이 될 수 있으며 발전 구심력이 부족한 도민들에게 새로운 지역발전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지주사업¹⁷⁾으로 슬로건화도 가능함
- 만경강은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를 이어진 연장이 98km걸쳐 길게 뻗어 있는 국가하천으로 새만금지구의 서해안과 접해 있는 전북의 젓줄로서 만경강변 하천내 약 60km 정도가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곳을 이용하여 농민들이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하천법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 형성된 자연 지형을 따라 건강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면 별도의 성토 없이 사업이 가능함
- 더구나 웰빙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 주변 곳곳에 크고 작은 생활체육 대회가 개최되는 등 과거 경제생산 활동에 치중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인 여가를 체육활동에 치중하는 현상을 볼 때 만경강변에 60km 건강로를 설치하여 만경강변을 생태체험과 연계한 웰빙체육단지로 조성시, 전국적인 명소화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지역특화를 통한 자치단체간 경쟁화시대에 좀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볼 때 하천법으로 규제한 행위제한의 문제로 사업의 현실성이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전국적인 명소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서해안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연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책사업 또는 광역 행정사업으로 한 전라북도 건강특구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7) 서울에는 한강의 기적, 전라북도는 ‘만경강의 기적’을 이룩하자 라는 공감대형성

- 서울의 한강 둔치의 활용이 홍수범람 요인이 아니듯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관통하는 전북의 젓줄 만경강변 둔치의 활용도 이와 무관하며, 넓게 형성된 둔치내 농작물을 경작하며 농작물이 수년간 수확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확인이 가능함



<그림 3-27> 만경강변 건강로 설치

□ 사업 SWOT 분석

- 강점
 - 만경강변 둔치가 넓고 길게 형성되어 있어, 하천 범람의 우려가 적으며 개발에 따른 비용도 일반사업과 비교할 때 절감될 수 있는 하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만경강변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하천변 건강로(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로, 조깅로) 연결시 체험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북 광역 건강로를 네트워크로 구축시 대체 교통망으로 활용이 가능함
 - 제4차 국토종합발전계획에 나타난 시도별 특화사업 육성방안에서 제시된 전략에서 전북이 지역관광 육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하천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국책사업에 반영되었을 때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 5개 이상의 자치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광역행정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약점

- 만경강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청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하천법 제17조의 규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하천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통수단면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의 어려움이 있음
- 관련사업 추진시 하천의 효율성과 주변지역내 농외소득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기회

- 경기 침체와 FTA체결 등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 도민들의 갈등과 대립이 봉합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확신보다는 불안이 팽배한 도민의 정서를 희망과 확신, 상생과 화합의 도민정서로 바꿀수 있도록 ‘만경강의 기적을 이롭시다’라는 슬로건아래 관련사업 추진 시 도민들의 힘을 결집하고 지역사업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주요한 전략사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기회요인으로 작용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하천법 제17조)이 필요함
- 만경강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청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하천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유역의 특성, 기후 및 기상 등 자연조건 등 다수의 요인을 검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나아가 만경강변 건강로 설치관련 시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해당 시·군이 정치권 협조를 통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도모함
-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자전거도로 등 건강로 설치 시 농촌지역에 가뜩이나 부족한 체육유희시설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원화로 도시지역과의 정주기반 차별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만금사업 지구 주변지역과 서해안 지역을 연계한 생활스포츠메카로 특화 가능
- 전국 최장의 코스로 조성될 수 있는 지형여건으로 웰빙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전국 명소화가 가능

- 또한 전주-완주-익산-김제-군산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생태하천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내권 자전거도로와 시외권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혁신네트워크 구축의 효과가 기대됨
- 국책사업 추진 불가 시, 관련 시군협의를 통해서 광역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 본 사업은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보전대책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오염예비정책에 부합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36> 만경강변 건강로 설치사업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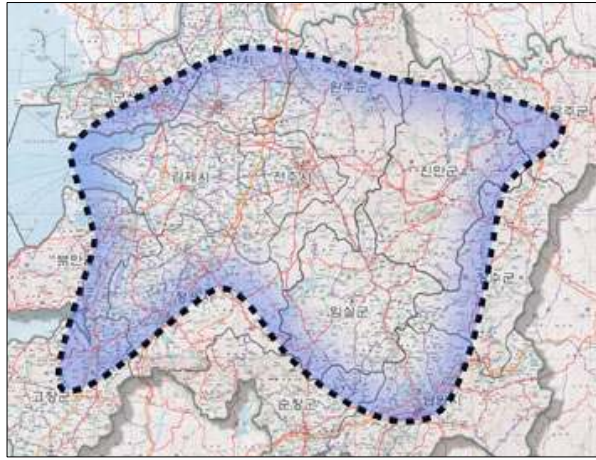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10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사업계획서 수립 및 실시설계	공사추진	공사완공	
사 업 비	총계	1,200	72	576	552	약 5년
	국비	840		420	420	
	도비	120		60	60	
	시,군비	240	72	96	72	
	민자 등					

2-3. 전라북도 동부권~서부권 관광순환 도로 개설

□ 사업의 필요성

- 그 동안 전라북도의 동부권과 서부권간에 지역발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형적인 문제로 인한 동서간 교통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이유임
- 동부권의 자연관광자원과 서부권의 산업화자원의 교류와, 전북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순환 도로를 개설하여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발전과 외부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를 얻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전라북도 전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그림 3-28> 전라북도 동부권~서부권 관광순환 도로 개설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본 사업의 강점으로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연계도로 용이, 해안지역과 산악지역의 연계된 대규모 관광개발 분위기 고조 등이 해당되며, 기회요인으로는 균형발전차원에서 중앙정부 배려정책을 이용할 수 있고, 관광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하여 지역특화 산업차원에서 자원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해당됨

○ 약점 및 위협

- 약점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며 위협요인으로는 타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따른 경쟁력약화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각 시·군과 전라북도 등의 협의를 통한 해당 자치단체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주변 여건을 조성하여 도의회나, 시의회 등이 앞장서서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
-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응전략의 구성으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하여 동서간 균

형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국책사업 제시해 나감

- 사업의 내용으로, 서해안고속도로~군산~새만금~부안~고창~정읍~순창~남원~장수~진안~무주~익산/포항간 고속도로에 연결된 관광순환 도로를 개설
- 또한 관광전용 도로를 건설하고 도로주변에 산악펜션, 휴양림, 거리체험공간 등의 숙박시설을 건설
- 본 사업은 전라북도의 관광 육성전략에 맞추어 서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도로 개설사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정책에 맞추 관광연계에 적합한 사업이며, 전라북도의 산악권과 바다권을 이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며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본 사업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나 자연훼손에 따른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이 우려됨

<표 3-37> 전라북도 동부권~서부권 관광순환 도로 개설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2008년	2007~2015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타당성조사 및 설계	공사시작 및 완공	
사업비	총계	8,000	7,900	약 10년
	국비	8,000	7,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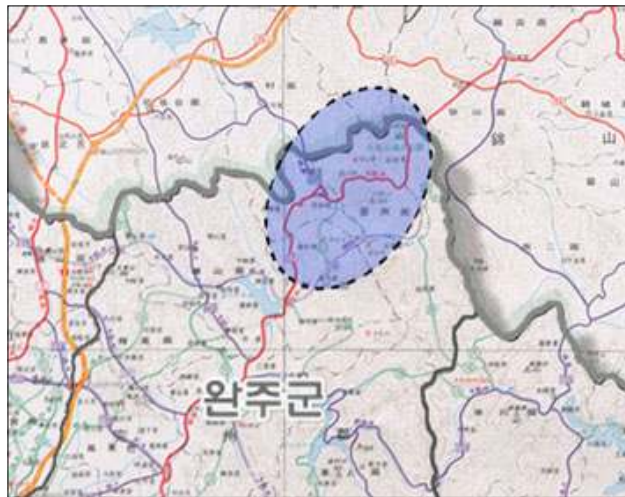
2-4. 국도 17호선 화산~금산간 확포장사업

□ 사업의 필요성

- 국도 17호선은 여천~용인을 이어주는 국가도로망의 근간으로 물류의 원활한 이동과 분산을 위하여 지난 '92년도를 시작으로 1차와 2차년도를 구분하여 20.7km를 폭 12m로 확포장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 2차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예상
- 국도의 공간적 배치에 있어 서해안과 동해안측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사업은 활발하게 확포장되고 있는 반면 중앙부를 이어주는 국도 17호선은 확장은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전북과 충남의 물류수송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 추

진되고 있는 확포장 공사가 2차년인 2005년도까지 완주군 화산면 도로까지만 계획되어 있고, 이후 연결 도로의 확포장은 불확실한 실정으로 도로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제기되는 등 조속한 공사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 차원에서, 국도 17호선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국도로서 전북 북동부권과 충남의 남부지역 주민들과 기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로서 대전권 발전시너지를 이어주는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간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간접시설임
- 국도 17호선상에는 완주군의 소재한 대둔산도립공원, 대아댐, 경천저수지, 죽림온천, 임실군, 남원시와 전남 순천시, 충남의 금산군이 놓여 있으며,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대둔산도립공원과 옥계천등을 찾는데 이용하는 등, 웰빙 시대에 건강 기회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산의 인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17호선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속에 있어, 지역의 특화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확포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국도 17호 선상의 지역특성은 농업인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낙후도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오지로서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군정목표로 삼고 있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해당지역의 발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시설의 확포장이 필요함



<그림 3-29> 국도 17호선 화산~금산간 확·포장사업

- 국도 17호선 선형 통과 구간이 산악지형으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L=26km에 3,380억원의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간적 위치로 볼 때 지역의 현안사업 정도로 검토될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와 주변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생활경제적 가치면에서 대형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 SWOT 분석

○ 강점

- 국도 17호선은 완주군과 전주, 임실, 남원을 연결하는 전북의 공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호남고속도로, 국도 1번·26번·27번 등 고속도로와 국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망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산업경쟁력 증대와 관광자원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음
- 발전 낙후지역인 인근 농어촌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충남과 전북, 전북과 영남권 교류 및 물류유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본시설로 지역의 연계성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 약점 및 위협

- 약점으로는, 지역의 물류비 절감과 관광자원들의 연계화를 통한 상품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3,380억의 막대한 소요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임
- 익산~광양간,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대체 우회도로 건설이 추진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도 17호선의 확포장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 야기될 소지와 함께 사업 추진일정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음

○ 기회

- 대전~금산간, 전주~완주 화산간 도로가 확장되었고 일부구간이 완주군 화산면-금산군 구간이 미 확포장 되어 있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의 문제와 지역발전 여건의 증대로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는 등 국도 17호

선의 확·포장을 통해서 대전권과 영남권 물류의 원활한 수송체계 확보와 물류 비용의 절감, 지역간 경쟁력 강화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전북과 충남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양 지역의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상호간 공조와 협조를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연대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시행부서인 익산국토관리청 및 건교부에 도로이용의 효용성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의하고, 관련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도지사 등 정치권을 통한 사업 건의
- 본 사업은 국가의 SOC사업으로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38> 국도 17호선 화산~금산간 확·포장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6~2007년	2008~2012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공사추진 및 완공	
사업비	총계	3,380	1,014	2,366	약 7년
	국비	3,380	1,014	2,366	

2-5. 동서횡단철도 건설

□ 사업의 필요성

- 철도는 국가 대동맥 역할을 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철도교통이 편리한 곳(분기역 등)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하게 됨
- 실례로, 대전은 한밭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경부선, 호남선이 분기되면서 철도중심도시로 발전하였고, 익산은 솥리라는 조그만 마을이 호남선, 전라선으로 분기되면서 철도중심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충북이 청주의 오송역을 KTX분기역으로

유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본 사업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볼 때 먼저, 중앙정부 시각에서, 호남(전북)과 영남(경북)을 연결하는 기능 및 영남 내륙의 대 중국 물류의 서해안 항만까지 직접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고¹⁸⁾, 영호남 직접 연결로 지역격차를 줄이는 동서화합의 기능을 수행하리라 기대됨



<그림 3-30> 동서횡단철도 건설

- 전라북도의 필요성 차원에서 볼 때, 영남내륙지역 및 강원도 지역의 대 중국 물류를 신속하게 다량 운송 가능
- 철도물류기지(전주역 또는 동산역), 항공물류기지(김제역), 항만물류기지(새만금 또는 군장), 새만금, 변산국립공원, 전주전통문화, 진안마이산, 덕유산국립공원을 철도로 연결 하여 물류 및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지역과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철도가 필요함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본 사업의 강점으로 서해안시대 동서로 관통하는 물류수송도로로써 새만금지구~대구간 운송비용 절감(6시간대 ⇒ 3시간대), 동서 지역간 물자교류 및 관광

18) 관광 및 산업적 측면에서의 효과

벨트화에 기여, 정읍, 순창, 임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송체계의 원활에 따른 바이오식품 및 농산물 수송체계 구축

- 동서지역간 연계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격차를 줄임
- 철도를 이용한 연계관광 기반 구축으로 철도이용 활성화는 물론 침체되어있는 전라북도 발전에 촉진제 역할 기대, 중앙정부의 혜택만을 기다리는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구축

○ 약점 및 위협

-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대도시로의 생활권이 옮겨져 인구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음
- 숙박시설 및 펜션 단지가 없거나 노후화되어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편의시설 및 위락단지가 없어 관광객 편의제공 및 위락활동제한

□ 세부 추진계획

○ 각 역별 동서횡단철도의 기능

- 새만금역 : 영남지역 대중국 물류를 다량으로 신속하게 운송하여 대중국교역 전진기지로 발전¹⁹⁾
- 김제공항역 : 공항을 철도로 연결시켜 항공화물공항 역할²⁰⁾(공항건설 명분 회복)
- 2002월드컵역 : 월드컵경기장으로 호남고속도로, 전주-광양간고속도로, 동서횡단 철도를 연결하여 상시 관광객을 유도
- 동산역 : 물류환적역(전라선, 동서횡단철도로 새만금, 김제화물공항으로 연결)으로 발전
- 전주역 : 호남고속철KTX²¹⁾과 전라선, 동서횡단철도 환승역(신설되는 호남고속철도의 중심역이 대도시 위주로 연결되어야 경영면에서 효율적임)과 호남고속철신선을 전주역으로 하여 효율성 증대²²⁾

19) 김천과 연결될 경우 영남 내륙 및 중앙선과도 연결되어 강원도 물류까지도 취급

20) 철도물류기지로 발전할 전주역(또는 동산역)에서 분류되는 항공물류 수출 국제공항

21) 수도권-충청권-전주-광주-목포노선

22) 전북 중심도시가 전주이기 때문임, 대도시간을 연결하여 철도경영을 효율적으로 함, 전라선 고속철 건설시 건설비 절감, 호남고속철신선이 전주를 경유하더라도 익산역의 기능은 재래

- 진안마이산역 : 역사를 마이산 인근으로 유치하여 관광객 편의 및 전북 동부지역 발전을 견인
- 김천역 : 경부선KTX중간역²³⁾예정으로 부산~전주간을 2시간30분내로 연결²⁴⁾하여 부산,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을 직접 철도로 무주, 전주, 새만금으로 신속하게 운송
- 사업 추진방안으로, 지역내 학계, 관계, 정치권²⁵⁾ 등에서 동서횡단철도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건설논리를 정립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개발전문위를 통하여 동서횡단철도의 당위성²⁶⁾을 확보하여 건의
- 본 사업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시책에 부합하나 환경 및 문화재 협의 이행에 따른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 없음

<표 3-39>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2007년	2008~2011년	2012~2014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타당성조사 및 설계	부지매입	전철화사업시행	
사업비	총계	10,000	200	5,800	4,000
	국비	10,000	200	5,800	4,000

2-6. 전북지역 연담도시 경전철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도시가 전주~익산~군산시임에도 이들 도시가 하나의 산업 및 경제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의

호남선 중심역으로 활용

23) 경주, 울산, 포항, 부산, 대구, 구미 및 강원도와 철도로 직접 연결

24) 부산~김천 1시간내외, 김천~전주 1시간30분 내외

25) 지역혁신연구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김제시청, 부안, 진안, 무주군청

26) 천안~전북~광주 노선은 대전~전북~광주 노선보다 거리상 건설비가 2배정도 더 소요됨, 대도시인 대전-전주, 전주~광주, 대전~광주간의 유동인구를 흡수하여 철도경영에 유리, 서울~대전~전주~광주를 연결할 경우 전주, 광주~대구, 경주, 부산을 2시간 내외로 연결함, 호남고속철도 전주역 경유는 추후 추진될 경우 전라선 고속철도 거리상 건설비용 절감

중심역할 및 축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중요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김제공항, 부안 원전수거물센터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여 전북도민들의 지역발전 기대 희망을 상실시키고 있으며 지역의 내부갈등을 지역발전의 승화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국책사업 발굴이 전무한 실정임
- 전라북도는 자체 성장잠재력이 없으면서 연담도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들일 경우 연담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반 인프라로 첨단 궤도 교통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광역 궤도교통망 구축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의 교통 특성과 연담도시 발전을 고려한 지역 간선기능의 첨단 궤도교통 도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담도시의 새로운 첨단 궤도교통 시스템과 함께 연담권 영역 내에 있는 도시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도시별 새로운 발전전략과 역할 새로운 기능 정립과 지역기반 시설로서 연담도시 첨단궤도 교통시스템 도입이 절실함
- 따라서 지역의 내부갈등을 하나로 묶고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전주~익산~군산간 연담권 도시의 신궤도교통 도입을 제안



<그림 3-31> 전북지역 연담도시 경전철사업

- 연담 경전철 도입 시, 익산/군산/전주를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연

- 담권 도시내부의 이용수요 뿐만 아니라 외부 이용수요 창출과 중앙기관의 지방 이전 시 최적의 이전지역으로 선호효과 기대, 연담권 도시의 산업생산력 향상 및 도시 영역권 확대, 연담도시화로 개발도시 성장 잠재력을 승화 시킬 수 있음
- 경량전철이 중량전철 보다는 건설사업비가 저렴하고 시공기간이나 시공성이 양호해 지역 낙후 및 지역민 숙원사업 해소, 철도와 연계하는 연담경전철 건설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통과 및 관람형 관광에서 체류 및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하여 관광수요를 확대 창출 할 수 있음
 - 장항선~호남선~전라선 연계로 인한 여객수요(내부여객통행+외부 관광여객통행) 상승 시너지효과 기대, 익산시를 외면의 확대뿐만 아니라 규모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

□ 사업 SWOT 분석

- 강점
 - 연담 경전철 노선은 신규노선으로 건설 전주-군산 간 26번 국도 노선을 중심으로 검토 하는 것이 건설비용/공사기간/이용수요/벗꽃 길을 이용한 관광수요 창출 차원에서 다른 대안노선보다 비교우위에 있음
 - 연담도시인 전주/익산/군산이 병행 발전할 수 있고, 연담 경전철 추진 시 호남고속철도에서 환승 익산-군산/익산-전주 접근이 20분 이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역사 결정되든 호남고속철도 역사와 둘러싼 연담도시 지역간 갈등은 해소 될 수 있음
 - 향후 중앙정부의 SOC 투자 전략을 보면 도로부문보다는 철도부문에 투자전략 우위에 있어 전북권의 연담도시 교통시설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약점
 - 연담 도시 교통기반시설 미비로 연담 도시 간 대중교통 기능상실과 지역간 교류저조, 연담 도시간 여객 및 화물수요를 도로 정책으로만 해결하려는 데서 파생되는 문제점과 이들 세 개 도시들이 개별도시의 잠재성장력으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자체 성장력으로 도시 발전을 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힘

○ 기회

- 연담 도시권역내 자체 성장잠재력이 없는 도시들을 병행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점, 연담 도시 간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 교류 활성화 촉진, 연담 도시 간 여객수요를 개인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유도 촉진, 연담 도시 간 신 교통기반시설 도입 시 기존의 연담 도시권 교통체계와 조화
- 또한 연담 도시 내 광역적 대기환경 개선, 전북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

○ 위협

- KTX와 연계한 연담권 영역에 포함된 도시들을 하나의 경제, 사회생활권역으로 묶어줄 수 있는 교통기반 시설로 전북지역 연담도시 경전철 신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다면 확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담도시간 연계가 어려움

□ 세부 추진계획

- 연담권 도시의 경전철 사업 추진 전략으로, 대부분의 신 교통 시스템 사업이 민자사업(BOT/BTO)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연담도시 인프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전철(LRT)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과 익산~순천간 복선전철화사업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정부에 임대해주고 그 임대비용을 정부로부터 받는 민자사업 방식(RTOL : Rehabilitation Transfer Operation Lease)을 고려할 수 있음
-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의 첨단 궤도교통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신규 노선으로 건설하여 여객중심기능을 부여하고 기존의 군산선은 화물중심으로 그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전라북도가 본 사업을 주관하되 전주/익산/군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 국회/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정치권과 연계 중앙정부를 상대로 연담도시 노면 LRT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주도록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요청

- 연담경전철과 광역철도와의 연계망구축은 장항선-호남선-전라선과의 여객수요 중심으로 연계되도록 철도노선 연계망구축과 실무추진 전략팀으로 도 및 3시의 주무부서 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전략팀을 구성하여 지역 언론과 지역 여론 주도 층을 중심으로 대정부 홍보 실시
- 또한,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경전철 사업도 적극 검토하여 본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정부재정의 합리적 활용과 민자 사업의 수익성 제고 효과도 고려하며 추진
- 본 사업은 정부의 SOC확충사업에 부합되며 상위 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으나 철도청과 협의가 필요함

<표 3-40> 전북지역 연담도시 경전철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6~2007년	2008~2012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타당성조사 및 설계	부지매입 및 사업시행	
사업비	총계	15,000	300	14,700
	국비	15,000	300	14,700

약 7년

2-7. 동서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정읍~장수)

□ 사업의 필요성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설공사 착수로 3년내 일일 교통량 10,000대 이상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분기에 따른 김제IC~태인 : 4차선 확장 개발 중 (L=20km), 태인~임실 (국도30호선) : 2차선 도로협소(L=38km), 임실~장수 : 2차선으로 선형 불량 (L=27km)의 연계 도로 개발이 필요
- 이에 따라, 정읍~장수(L=65km)를 잇는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 본 사업과 더불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및 연계도로 개발에 따른 주변 접속도로 구간 건설, 서해안 시대에 부흥하는 새만금 물동량 운반 수송비 절감을 위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계도로망 건설, 낙후 전북 탈피와 동서 지

역간 물류이동 체계를 위한 도로 건설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많으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 미흡에 따른 도로 건설 등의 사업이 필요함



<그림 3-32> 동서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정읍~장수)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본 사업의 강점으로 서해안시대 동서로 관통하는 물류수송도로로써 새만금지구~대구간 운송비용 절감(6시간대 ⇒ 3시간대), 동서 지역간 물자교류 및 관광벨트화에 기여, 정읍, 순창, 임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송체계의 원활에 따른 바이오식품 및 농산물 수송체계 구축
- 기회요인으로 주변 임실군에서 연간관광객 100만명이 예상되는 애견동물원, 골프장 건립²⁷⁾, 국제 사격장²⁸⁾ 및 국립호국원²⁹⁾ 등이 조성 또는 조성중이며, 장수군에서는 경주마 목장 착공, 장수사과의 브랜드화로 관광객의 증가추세, 정읍시에서는 내장산국립공원 등 주변도시에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동서간 관광권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음

27) 임실군 신덕 36홀

28) 임실군 청용면 50,000평

29) 규모50,000기

□ 세부 추진계획

-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공사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고, 3개 시·군에 해당되는 정치권이 합세하여 사업시행을 건의
- 또한 지방 방송을 통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방영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지방지 홍보를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역량 결집
- 본 사업은 정부의 SOC확충 사업과 일치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41> 동서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05~2006년	2007년	2008~2015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지보상 및 타기관과의 협의	사업시행 및 완공	
사업비	총계	7,800	100	3,120	4,490	약 10년
	국비	7,800	100	3,120	4,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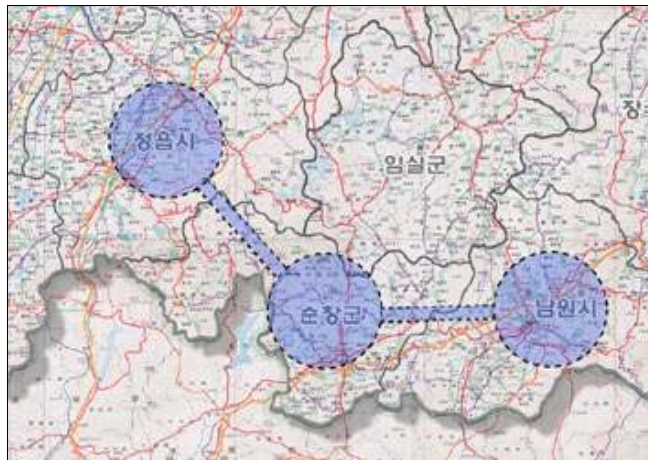
2-8. 정읍/고창/부안~지리산/남원 통합관광 인프라(LRT) 구축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도세규모가 비슷한 강원, 충북 등 타 지역에 비해 전라북도는 현저히 낙후되어 있으며 그 한 예로 살펴보면 80년대 전라북도 인구규모가 250만에서 2004년 현재는 180만 인구 규모로 현격하게 줄어들어 삶의 터전을 찾아 돌아오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떠나는 전라북도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 반면 충북은 충남과 함께 과학기술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강원은 관광레저 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여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월등히 비교 우위에 있는 상황임
- 이 같은 배경에는 전라북도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단지 또는 관광레저 산업의 기반이 되는 관광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 떠나는 전라북도에서 돌아오는 전라북도로 바꾸어 나가려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유·무형 자연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함
- 구체적인 방안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정신/종교문화 등 무형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여 지역경제활동의 기반으로 만들어서 살기 좋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쉬고 싶은 곳과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여 떠나는 전라북도에서 찾아오는 전라북도로 만들 수 있는 기틀 마련

- 이에 따라 정읍/고창/부안~지리산/남원(L=80km)을 잇는 통합관광 LRT를 구축
- 본 사업의 효과로 정읍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서남부지역과 순창-남원 등 동부 산악 지역을 하나의 통합 관광권으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 수익 창출, 정읍-남원 관광 LRT조성으로 호남선/전라선간 철도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철도를 이용한 철도관광 활성화 기반마련, 스포츠/레저/관광과 지역의 각종 문화축제 연계운영 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기대



<그림 3-33> 정읍/고창/부안~지리산/남원 통합관광 인프라(LRT) 구축사업

□ 사업 SWOT 분석

○ 강점

- 이 사업의 강점은 우리나라 전체국토를 놓고 관광문화 차원에서 볼 때 정읍~부안~고창과 지리산~남원권은 서남부지역의 중심위치에 있으면서 역사문화·정신문화·종교문화·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최적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
- 역사문화 : 삼한/삼국/신라/고려/조선의 역사자료가 풍부함
- 정신문화 : 정유재란 당시 구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남원의 만인의총(구국정신활

- 동), 동학혁명운동을 이끈 전봉준장군의 출생지 정읍의 동학정신 등
- 종교문화 : 일제시대 때 항일 운동을 하며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벌인 민족종교 보천교(일제 때 500만 신도)/ 남원 순창을 기반으로 한 갱생 유도회
 - 사찰 : 정읍 내장사/고창 선운사/부안 내소사/순창 강천사/남원 실상사/구례 화엄사
 - 자연경관 : 내장산국립공원 /변산도립공원/선운도립공원/강천도립공원/지리산 국립공원/부안~고창 천혜의 해안

○ 약점

- 연계관광 인프라가 없어 관광객들의 연계관광이 어렵고, 숙박시설 및 펜션 단지가 없거나 노후화되어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편의시설 및 위락단지가 없어 관광객 편의제공 및 위락활동제약과, 전라북도 자체예산으로는 정읍~남원 통합관광권역 조성사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심각한 침체 가속 및 기업유치가 어려운 점 등이 약점임

○ 기회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가정책에 적절한 사업으로 친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머무르는 전라북도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철도를 이용한 연계관광 기반 구축으로 철도이용 활성화는 물론 침체되어있는 전라북도 발전에 촉진제 역할 기대, 중앙정부의 혜택만을 기다리는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구축, 정치적으로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

○ 위협

-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적합한 전략으로 지역발전의 틀을 지금 짜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낙후된 정읍/남원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낙후 전라북도를 면하기 어렵게 됨
- 한 예로 서해안 고속도로개설로 인한 주변지역 개발과 발전은 경기, 충남, 목포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유독 전라북도만 그 축에서 빠져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정치권과 중앙 행정부간 연계하여, 국회, 건교부, 기획예산처 상대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참여형 국책사업으로 정읍~남원 통합관광 인프라로 관광 LRT 구축사업을 요청
- 타당성검토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수행은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지역 균형발전적 차원의 타당성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사업추진 실무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천 전략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전라북도의 논리적 당위성 마련
-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세미나 추진, 여론 수렴 및 대국민 홍보를 병행
- 특히, 정읍-남원연계 관광권역 구축 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철도이용 활성화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철도청과 사업추진 연계방안 고려하여 관광시즌 대형버스 및 자가용 단위 한대 당 통행거리가 늘어나 고속도로 및 국도의 지체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으며 관광교통산업 및 관광교통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하며 민자사업 추진방안도 고려
- 본 사업은 정부의 SOC확충사업에 일치하나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 되도록 하여 추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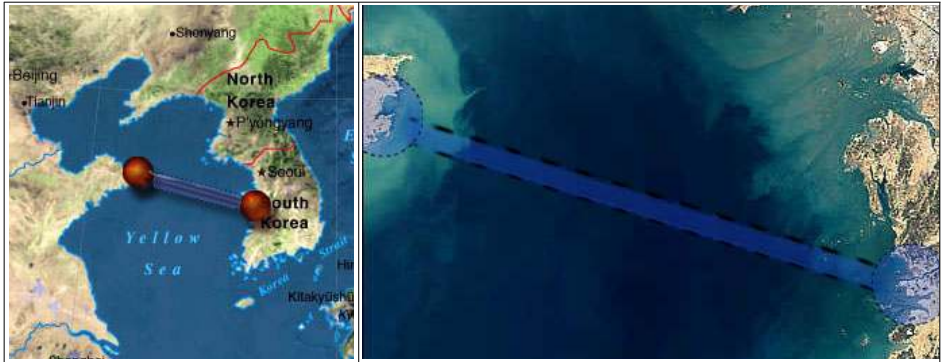
<표 3-42> 정읍/고창/부안~지리산/남원 통합관광 인프라(LRT) 구축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2006년	2007~2008년	2009~2012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착공	시공 및 완공	
사업비	총계	16,000	100	6,300	약 9년
	국비	16,000	100	6,300	

2-9. 군산~중국 청도간 해저터널 건설

□ 사업의 필요성

- 참여정부가 지역별 내부 혁신역량에 따라 예산 등 자원배분을 하겠다는 기조로 지역분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낙후된 전북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고 향후 지속발전을 꾀할 수 있는 대형 SOC를 확보하는 선도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함
- 우선 국내 경제 환경과 관련 북한과의 관계개선 여부에 따라 한국과 유러시아를 잇는 연계철도 계획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경제축이 동해안과 수도권 중심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서해안권의 개발프로젝트가 절실함
- 또 정치 환경적으로도 비록 현재의 위헌판결이 나왔지만 충청권 행정도시 개발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서해안권 중에서 이미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서 위상을 상당부분 훼손당한 전북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음
- 이런 가운데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부상은 전북 개발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착된 전북의 저개발 고리를 일거에 단절시키고 국내 경제, 정치 환경에서의 종속적인 현실을 주도적인 위치로 급반전시킬 방안을 중국과의 관계에서 천부적인 지리적 관계와 연결해 해저터널을 추진
- 즉, 군산과 중국 대련 또는 청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노선으로 터널을 시공하면 국내적으로 건설특수를 통해 더블 딥 상태에 빠진 국내 경기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대대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절감과 교류 증진을 유발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전북의 경우 국내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지역으로 부상해 일거에 한국경제의 중심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 GDP가 지난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했고 2020년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분석되는 중국경제와 역시 고도성장 단계에 들어선 서남아시아 벨트를 잇는 아시아 해안경제벨트의 시발축으로서 군산과 전북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그림 3-34> 군산~중국 청도간 해저터널 건설사업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민간투자로 추진된 영-불 터널은 계획 당시 비용문제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94년 개통 10년만인 내년부터 주주배당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는 점을 상기하며 해저터널의 경제적 효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또 제2의 채널터널 건설계획이 구체화되고 일본 또한 열도를 잇는 해저터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성 있음
- 시공상 문제만 없다면 거리가 길면 길수록 경제적 효과 또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

○ 약점 및 위협

- 개발전략으로서 효과가 기대되는 군산~중국 해저터널 사업은 현재로서는 막대한 비용부담에다 안보 등 부수적인 문제점을 감안할 때 결코 순탄치 않음
- 영국과 프랑스 간 채널터널 건설비용이 50km 구간에 150억불이 소요됐고, 논의 중인 한국~일본 해저터널이 158km에 100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각각 564km와 582km에 이르는 군산~대련, 군산~청도 해저터널 건설은 천문학적인 비용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움

□ 세부 추진계획

- 전북의 입장에선 군산~중국 해저터널 공사를 대형국책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만한 사업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과 서남아시아 해양경제권을 감안할 때 언젠가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이 이뤄진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선진함으로써 입지로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함
- 또 새만금 내부개발과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 연육교 가설에 이와 같은 원대한 구상을 가미해 군산~중국 해저터널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거리단축 등 기초를 닦아 나가야 함
- 사업 추진방안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와 주변 여건을 조성하여 도의회나, 시의회 등이 앞장서서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중국과 협의하여 국제적 사업으로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여 동북아 경제권시대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국가의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 본 사업은 장기적 국가대형프로젝트 추진으로 건의가 가능한사업이며 국제적 사업으로 양국간의 협의 절차가 필요함

<표 3-43> 군산~중국 청도간 해저터널 건설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2010년	2010~2020년	2030년 이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타당성조사	사업설계	공사시작 및 완공	
사업비	총계	100,000	300	19,700	80,000
	국비	100,000	300	19,700	80,000

2-10. 부안 격포~위도간 해저터널 건설

□ 사업의 필요성

-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유보에 따른 부안군민들의 지역이익증진에 기여하는 대형국책사업이 필요하며, 내변산 국립공원과 어우러진 해양관광지 활성화 및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서해안 관광거점화 및 해양관광지 육성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서해안의 해양관광개발의 필요성 있음
- 이에 따라 격포~위도(L=12)km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함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본 사업의 강점으로는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새만금 건설 등 기술노하우 축적, 서해안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 분위기 고조,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코스 적격, 서해안의 유일한 해저터널지형이라는 점이 있음
 - 기회요인으로는 균형발전차원에서 중앙정부배려, 대중국 관광객 유치에 따른 해저터널 관광 선점, 방폐장과 연계한 국책사업 유도, 새만금 동진강유역 대단위 관광지와 연계 가능한 점이 해당



<그림 3-35> 부안 격포~위도간 해저터널 건설

- 약점 및 위협
 - 약점요인으로 환경단체의 반발우려, 주민들의 반발우려, 대규모 예산 소요, 위도

의 관광자원 미흡 등이 있음

- 위협요인으로는 전라남도 등 인근 도서지역의 해저터널요구에 따른 경쟁치열, 육상 연계관광에 따른 사업의 회의적 관점, 중국관광객 유치관련 문제 등이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학계 및 전문가 등의 견해와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저터널의 실현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정치권을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를 설득 해야함
- 본 사업은 해양관광자원개발에 따른 정부시책과 일치하며 대규모 국비소요사업으로 경제성문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44> 부안 격포~위도간 해저터널 건설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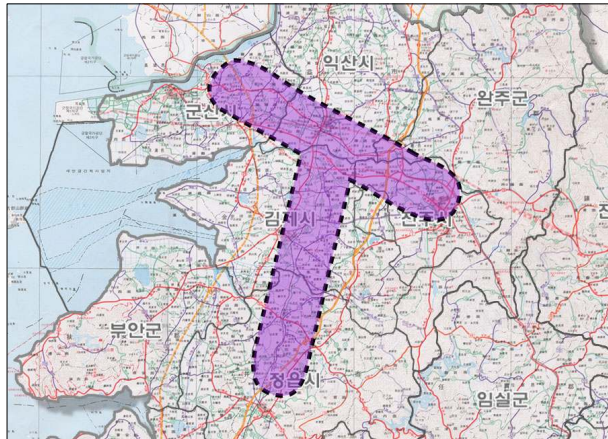
구 분		2005~2007년	2008~2010년	2011~2020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타당성조사	사업설계	사업시작 및 완공	
사업비	총계	10,000	100	1,900	8,000
	국비	10,000	100	1,900	8,000

3. 경제통상산업 사업

3-1. 전주~익산~군산~김제를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전라북도의 잠재산업역량을 발굴하고 산업벨트를 조성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T자형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전주기계테크노권은 고부가 기계부품생산·특화기계 산업단지·첨단 메카노클러스터, 익산테크노권은 자동차 및 기계부품생산·고부가 귀금속보석가공 산업군, 군산자동차테크노권은 완성차 및 부품생산·자동차집적화단지·첨단오토클러스터, 정읍·김제테크노권은 일반기계 및 농기계·자동차 및 기계부품생산이 해당됨
- 장기적으로 새만금 지구 군산 행정구역내에 새만금테크노권을 형성시켜 고기능 신소재생산·항공우주산업·차세대부품·물류산업을 선정하여 육성·발전시키려는 계획임



<그림 3-36> 전주~익산~군산~김제를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가 병행 발전할 수 있고, 생활권역의 확장과 동시에

- 도내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단지의 집적화로 인해 개별 역량이 강해지고 전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점이 강점임
- 대중국 교역 증가와 환황해권의 거점물류 기지로서의 새만금 지역, KTX, 신철고속도로 및 철도 등의 물류망 확충 등에 의해 전라북도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기회요인에 해당

○ 약점 및 위협

- 약점으로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편제, 관련 시·군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통기반시설 미비와 인구의 고령화 등에 의한 도시의 활력 저하,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자체 성장력으로 도시 발전을 꾀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있음
- 위협요인으로는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새만금 사업추진의 불투명, 사업마인드 결여 및 역량 부족, 아이디어 부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사업주체의 추진력 도전, 각 이해관계단체의 요구 등의 장애요인이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전북도내 기초지자체간에 협력하여 연구개발 집적지와 산업 집적지 주변에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연구소,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함
- 아울러 차별화된 집적화 추진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가 상호 수평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지역 토착형 클러스터 모델을 추진하고, 자동차부품 및 기계 산업의 동반육성을 통한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등 연계 발전을 도모함
- 전북과 광주·전남간 부품산업의 연계육성을 추진하여 권역내 자체 부품 조달체계를 구축하며, 호남권, 울산·경남권, 충청권과 연계시켜 상호보완 및 개방형 광역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함
- 잠재된 혁신역량의 지원정책에 부합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45> 전주~익산~군산~김제를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2008년	2009~2014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타당성조사 및 설계	인프라 및 클러스터조성	시설도입 및 사업완료	
사 업 비	총계	13,300	300	9,000	4,000
	국비	3,000		3,000	
	도비	2,100	100	1,500	500
	지방비	2,200	200	1,500	500
	민자	6,000		3,000	3,000

3-2.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지역혁신전략산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국제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절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화석연료인 석유는 향후 50년이면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친환경적이고 무한히 사용 가능한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풍력발전,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에 세계 각국이 주목
- 우리 정부에서도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1년까지 총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현재 2.1%)을 5%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사업,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너지 사업 계획을 추진 중
-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완주군 봉동읍 과학산업연구단지 일원 93만여 평에 사업비 2천억원을 투입 2010년까지 산·학·연·관의 협력하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혁신도시, 테마마을 조성 및 전시·홍보관 건립, 국제포럼을 유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생산의 메카를 조성하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국내외 대체에너지 산업 및 연구의 메카로 부상할 경우 고용창출의 기반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그림 3-37>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지난 7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서 전라북도 4대 지역혁신전략사업의 하나로써 선정된 RFT 및 대체에너지 산업에 대하여 대통령 및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중앙정부의 적극지원 약속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전북의 차별화된 전략사업으로 전북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와 태양광, 풍력을 3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성 제기
- 전라북도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에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10년 동안 총 3,009억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북 지역의 특화 발전을 도모함

□ 사업 SWOT 분석

- 강점
 - 본 사업 추진의 강점으로는 SOC 측면에서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최상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완주지역은 전라북도의 중심지로서 대형 국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인프라나 산업발전 여건이 충만한 상태임
 - 호남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여 삼례, 이서, 익산IC가 위치해 있으며, 국도 1번·17번·26번·27번등이 연결되어 사통팔달의 네트워크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전라선 철도가 서북-동남으로 가로지르며 삼례와 상관 죽림온천 역사가 위치해있

고 전주시 동부, 서부우회도로,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있어, 지역 연계성을 증대시키고 익산~광양간, 군산~함양간 고속도로등이 지역을 관통하며 2개의 분기점이 형성될 계획으로 물류 유통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지역임

- 특히, 양질의 산업용지와 대아댐, 용담댐에서 공급하는 최상질의 공업용수 공급 기반이 구축된 지역임
- 완주군은 200만평 규모의 완주산업단지와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국내 굴지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전북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93만평이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되어 전북 R&D분야를 선도하는 핵심역량지역으로 변모가 예상됨
- 신재생에너지 연관 기업으로 연료전지 생산업체인 (주)프로파워와 풍력발전기 생산업체인 (주)코윈텍이 과학연구단지내 입주를 위해 연구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사업 유치를 위한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위원회가 2004년 9월 1일, 15명으로 발족되어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중임

○ 약점

- 산업기반이 전라북도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수한 지역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구조가 1차산업 비중이 높으며,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산업군이 제조업 위주로 형성되어 혁신사업이 부족함
-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발전잠재력이 뛰어나지만 행정구역이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지역 중심거점이 취약하고, 지역의 중추기능수행 등 지역발전 선도의 지역 중심성 취약으로 정체성과 독자성 부족

○ 기회

- 고유가시대에 도래와 함께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현실에 비춰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미래청정에너지 사업을 지역의 핵심사업군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완주군이 전북지역의 개발 거점으로 접근성과 지역개발 잠재력면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었으며, 산업의 전문화와 집적

화에서 경쟁우위의 있고, 청정산업 추진을 위한 지역기반이 갖추어져 신재생에너지 추진기반과 수용태세가 완비되어, 연관산업 육성 시 발전 시너지 효과를 지역 곳곳으로 파급해 나갈 수 있는 지리적 공간에 위치에 있는 등, 대전의 R&D단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사업 연계화가 용이한 지역임

○ 위협

- 고유가시대 도래는 대기업들의 산업경쟁력 증대를 위한 필연적 이유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집중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관련 연구기반이 갖추어져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이 중소기업 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실정임
-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지원과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대기업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연관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려는 우리지역의 발전전략이 불확실해 질 우려가 높은바,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대책도 마련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수소, 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첨단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연료전지 시장규모가 2050년도 1,500억불로 예상하고 있음
- 전라북도가 4대 지역혁신전략산업의 하나로 RFT 및 신재생에너지 선정에 있어 완주군과 함께 관련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업 이전시 최고 100억원 (도 50, 군 50)까지 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업연구실을 무상 임대 제공하고, 사업 공모를 통하여 과제당 평균 1억원 규모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함
- 또한 과학연구단지 주변에는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할 방침으로 대체에너지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택을 만들어 색다른 생활공간을 조성하며, 특히 각종 공공기관 청사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관계법을 정비하도록 대책을 강구 중임
- 완주군 봉동읍 과학산업연구단지 93만평 부지내에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실시할 경우 고용창출의 기반 확보와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완주군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자부의 지원 협조 요청

- 본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사업과 일치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46>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2006년	2007~2008년	2009~2010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관련기업 및 연구소 유치	신재생산업단지 조성	사업완공	
사업비	총계	2,000	900	900	약 6년
	국비	2,000	900	900	

3-3.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융합기술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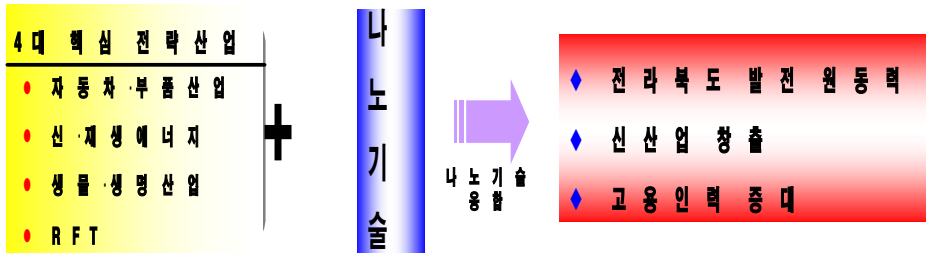
□ 사업의 필요성

-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2%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산업으로서 현재 5.2%의 자동차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10%대로 끌어올려 세계 4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중국과의 현재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 기계부품 가격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운전자들은 보다 편하고 안락하며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공해 자동차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자동차 시장을 겨냥하여 외국에서는 전자장치부품 및 자동차에 사용되는 최첨단 경량소재를 연구개발 및 상품화 하고 있어, 이런 시점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자동차 기계부품산업에서 청정동력원, 차량 경량화, 카씨어터, 네비게이션등의 자동차용 display분야와 지능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최첨단 전자장치 부품 등의 신기술의 개발이 절실함
- 이와 같이 위에서 제시된 자동차산업과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문제점들은 나노기술을 융합함으로써 해결 가능함

- 자동차산업의 경우 나노소재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가 적고 해상도가 높은 자동차용 display를 개발 할 수 있으며, 나노기술을 통해 초소형/고출력 전장부품 및 고감도의 센서 개발을 할 수 있고, 또한 나노기술을 무기 및 유기 재료 합성에 융합함으로써 차체의 경량화를 할 수 있어 고연비 자동차를 개발 할 수 있어 차세대 자동차산업을 이끌어가는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 가능
- 신·재생산업의 경우 나노기술을 태양전지 재료 개발에 융합시킴으로서 단위 면적당 효율 향상을 꾀할 수 있어서 가격인하와 효율 증대를 기할 수 있어서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음
- 또한 수송용 연료전지의 핵심기술인 수소저장에 나노소재를 이용하면 수소저장의 안정성과 저장탱크의 경량화를 꾀할 수 있어 수송용 에너지원의 핵심기술을 해결할 수 있음. 수소제조기술은 태양전지에 의한 수소제조법, 전기분해법, 연료전지의 전극과 전해질의 재료합성에 나노기술을 융합시키면 재료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연료전지의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실용화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음. 이렇게 되면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가정이나 공장에 전기를 공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저장체에 저장하여 수송용 연료전지에 사용함으로써 자동차나 항공기의 동력원으로 공급할 수 있어 지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 가능
- 현재 생물·생명산업은 IT, NT, ET등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 중임
- 이러한 시점에서 나노기술과 생물·생명산업을 융합함으로써 생체센서, 약물 전달체계 개발, 유전자 조작, 병충해 제어로 농업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 및 식량 문제 해결,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를 측정·제어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인간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 밖에도 방사선융합기술(RFT)과 나노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나노급 방사선 영상장치 개발, 천연화합물 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 창출과 핵심기술의 확보 가능
- 결국 전라북도의 모든 전략산업(자동차·기계부품, 신재생에너지, RFT, 생물·생명산업)에 나노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이들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어서

전북지역의 기술 및 경제를 한 단계 향상시킴

- 현재는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과 화석에너지의 저장량 감소로 고유가 시대이며,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에는 기존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그림 3-38>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기술융합

- 특히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는 집중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에너지 패러다임을 화석연료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기술로는 실용화가 어려워 빠른 시일 내에 신 재료의 개발이 절실함
-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RFT, 생물·생명산업은 전라북도 전략산업으로서 정부의 관심과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2004년에 전주에 구축된 나노기술집적센터를 비롯하여 나노기술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정책적·지리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략산업과 나노기술 융합을 통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함
- 사업 관련 인프라 측면으로, 전라북도에는 대학/연구소/기업 등 국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사업 및 나노기술 관련 인프라가 구축
- 대학관련 인프라는 전라북도 내에 나노기술 전공 교수 인력이 약 120명, 대학원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약 350명이 있으며 각 대학내의 나노관련 연구소와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인프라가 구축
- 연구소 관련 인프라는 나노분석 및 특성 평가를 전문지원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전주분소)와 나노메카트로닉스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나노공정 및

장비기술을 개발하고, 개발기술을 이용하여 나노소자, 바이오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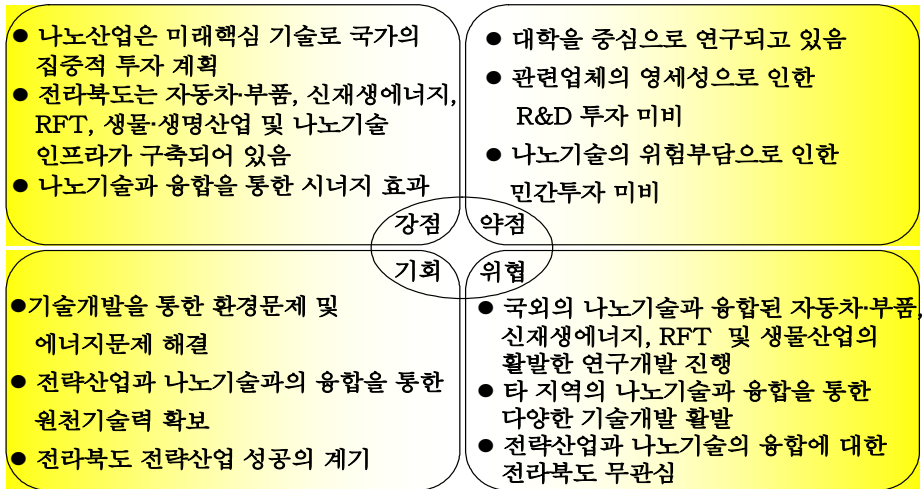
- 기업으로는 전라북도에 광전자, 나리지온, 고덴시, 동우 화인켐, 원반도체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회사와 나노관련업체가 분포되어 있어 자동차 전장부품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등을 개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자동차회사로 현대자동차(전주봉동)과 GM-대우자동차(군산)가 있으며 161개의 부품업체가 있어 자동차산업과 나노기술 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최적의 조건 구비
- 또한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인 나노기술집적센터가 2004년에 전라북도 전주에 구축됨으로서 전라북도에 나노기술이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나노종합Fab(대전), 나노특화Fab(경기도), 나노기술집적센터(포항)등 나노관련 센터와 연계할 수 있어 나노기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나노기술을 전라북도에 집중할 수 있음
- 정책적 측면으로, 정부는 2001년 7월 미래기술의 핵심인 나노기술의 개발과 인력양성, 관련시설구축 등에 관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10년 동안 총 1조 4,850억원을 투자하여 나노기술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전략사업과 나노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라북도에 본 사업 유치가 유리함



<그림 3-39>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융합기술 개발사업

□ 사업 SWOT 분석

-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RFT, 생물·생명산업은 전라북도 전략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유치되었을 경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략 산업과 나노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성장 가능
- 지리적 측면으로, 군산항은 동북아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중요한 지리적 장점 보유
- 전주 나노기술집적센터와 대전 나노종합Fab, 경기도 나노특화Fab 및 포항 나노기술집적센터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
- 따라서 전라북도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신산업 창출, 고용효과 증대, 전문인력양성 등의 효과를 가져와 전라북도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



<그림 3-40>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기술융합 사업의 SWOT 분석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인 나노기술집적센터를 2004년에 전라북도 전주가 유치함으로써 수도권(나노특화웹센터), 중부권(나노종합웹센터), 동부권(나노기술집적센터)과 함께 나노관련 기반시설이 전국에 구축되어 있음
- 나노센터를 중심으로 나노기술 및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노기술 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는 나노관련 R&D 및 사업을 전라북도 및 나노센터가 구축된 지역에 집중 투자할 의지 보유
- 중앙정부는 2001년 7월 미래기술의 핵심인 나노기술의 개발과 인력양성, 관련시설구축 등에 관한 범부처 차원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나노기술 선진 5대국에 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사업기간은 2001~2010년의 10년간 3단계로 구분되며 총 1조 4,850억원이 투자됨
- 중앙정부에서 지역전략사업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노기술과 전라북도 전략산업(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RFT, 생물·생명산업)과 융합한 국책사업은 정부투자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히 유리함
- 중앙정부는 나노기술 관련사업과 지역전략산업에 많은 관심과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노기술과 전라북도 전략사업의 융합을 통해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차세대 동력산업인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투자 의지를 확실히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정·관·학을 중심으로 국책사업 유치를 추진한다면 전라북도는 국책사업 유치와 성공적 사업수행을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지역혁신 5개년계획과 일치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47>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융합기술 개발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6~2007년	2007~2011년	2011~2012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사업진행단계	2단계사업	3단계사업	
사 업 비	총계	1,200	200	400	600	약 7년
	국비	600	100	200	300	
	민자 등	600	100	200	300	

3-4.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한·중 무역클러스터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한국은 노동집약형 상품의 80% 이상을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가운데 노동비와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생산원가에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국제분업(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내수공급이 유리함
- 한국의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구조를 감안할 때 중국에 출장을 통한 아웃소싱은 많은 경비와 언어문제 등이 난제임
- 따라서 중국기업과의 아웃소싱은 중국기업의 한국지사(집적화단지)를 통해 중국기업과의 효율적 협력을 통해 산업공동화 방지를 모색해야 함
- 또 물류 유통 분야에서도 공장의 이전 등으로 생산구조는 이미 글로벌 환경으로 변화되어 있으나 내수소비를 위한 수입상품 유통구조는 여전히 많은 유통단계를 거치는 재래식 무역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한중 중소기업 생산자 직거래 판매단지 및 무역집적화 단지, 경공업 분야 상품 직수입단지 및 수입상품 도매시장 등의 한·중 무역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을 제안함



<그림 3-41>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한·중 무역클러스터 조성

- 경공업분야 상품 직수입단지를 조성하여, 중국과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물류 집적화 단지와 수입상품 도매시장을 조성하여,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얻는 데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으며, 한·중 무역물류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다국적 바이어를 모이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집적 인프라를 통해 한국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본 사업의 강점으로, 대중국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 유통비를 줄여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해당함
 - 기회요인으로는, 대중국 교역 증가와 환황해권의 거점물류 기지로서의 새만금 지역, KTX, 신설 고속도로 및 철도 등의 물류망 확충 등에 의해 전라북도가 성장 가능성 등이 있음
- 약점 및 위협
 - 약점으로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구조를 감안할 때 중국을 통한 아웃소싱은 많은 경비와 언어문제 등이 어렵고, 여전히 산업구조가 1차산업 비중이 높으며,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산업군이 제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보다 혁신사업 유치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
 - 위협요인으로,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새만금 사업추진의 불투명, 사업마인드 결여 및 역량 부족, 아이디어 부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사업주체의 추진력 도전, 각 이해관계단체의 요구 등의 장애요인이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개발 추진팀을 구성하여 지역 정치권과 연계하여 사업 당위성 설명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대응전략을 구성

-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클러스터지정 추진계획과 일치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 여건은 없음

<표 3-48>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한·중 무역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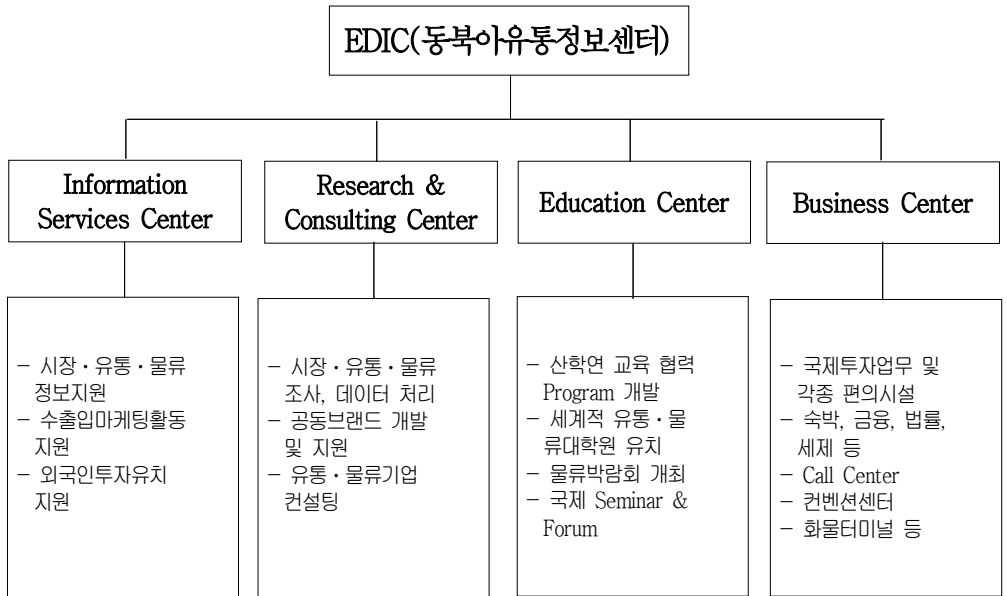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100개 업체 입주	400개 업체 입주	관광지조성	
사 업 비	총계	500	50	200	250	약 3년
	국비	250	25	100	125	
	민자 등	250	25	100	125	

3-5.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동북아유통정보센터 건립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동북아 유통물류의 정보력이 국가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세계적 유통물류의 동북아 비즈니스 활동 중심지로의 성장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사업임
-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항만을 중심으로 동북아 유통물류정보의 메카로서 지역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이에 따라, 새만금 지구내에 Information Services Center, Research & Consulting Center, Education Center, Business Center 등의 기능이 갖추어진 동북아 유통정보센터를 건립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유사기관 간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 세계적 유통물류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한 투자의 활성화, 타 산업으로의 연쇄과급효과, 유통물류구조의 선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적 투자를 통한 전북지역의 생산, 소득, 고용효과 창출, 21세기 동북아 유통물류중심지로의 부상 등의 효과 기대

□ 세부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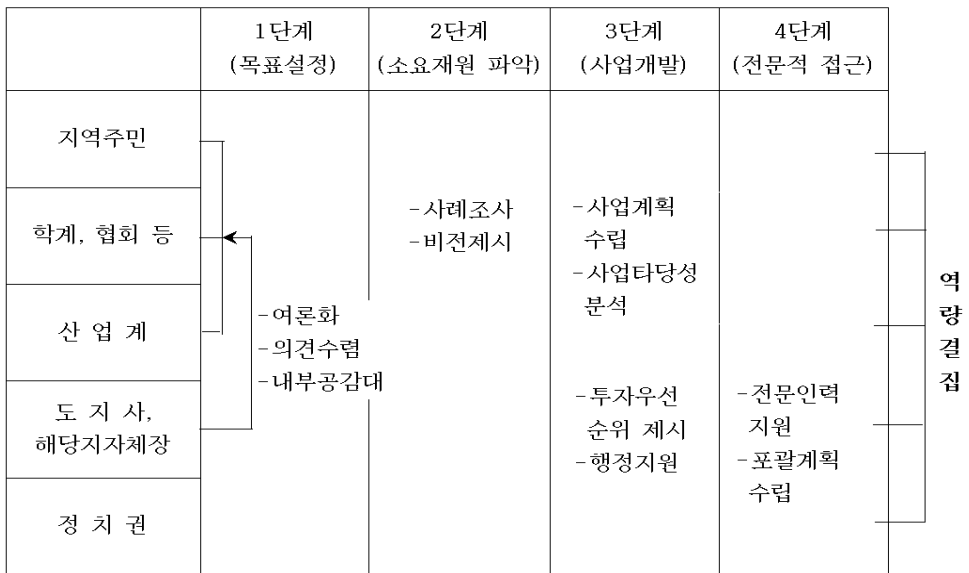
<그림 3-42> 동북아 유통정보센터의 기능도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제적 이미지 강화, 국제경쟁력 제고, 동북아 시장·유통·물류 중심국가 도약,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유치 확대 및 활성화,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교류 및 협력 증대 등의 기대효과를 획득



<그림 3-43>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동북아유통정보센터 건립사업

-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국내 시장·유통·물류 관련 연구 & 정보 메카로서의 위상 강화, 유관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 지역유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효과 창출 및 소득, 생산성 증대, 시장·유통·물류 관련 산·관·학 연계 강화로 전문인력 양성 등의 효과를 기대
- 관련 산업 차원에서는 시장·유통·물류 유관기관의 연계에 의한 시너지효과 창출, 시장·유통·물류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물류비용 절감, 유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시설 이용효율화, 수출입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 및 운영관리상 효율화 기대, 시장·유통·물류 관련 정보의 one-stop service로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
- 하지만,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새만금 사업추진의 불투명, 사업마인드 결여 및 역량 부족, 아이디어 부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사업주체의 추진력 도전, 각 이해관계단체의 요구 등의 장애요인이 있어 이와 같은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함



<그림 3-44>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동북아유통정보센터 건립사업 추진방안

-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학계, 협회, 산업계, 해당지자체,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공감대를 통해 여론을 형성

- 소요재원을 위한 사례조사 및 비전제시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정립하고 행정지원이 되도록 역량을 결집
- 산업자원부의 클러스터지정 추진계획과 일치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49>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동북아유통정보센터 건립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7~2008년	2009~2010년	2011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사업진행단계	2단계사업	공사완료	
사업비	총계	1,000	100	800	100
	국비	1,000	100	800	100

약 7년

4. 농림 사업

4-1.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 사업의 필요성

-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중요한 목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 육성시책의 미흡으로 효과가 미약하였으며, 개발위주의 정책에 의한 환경오염, 자연훼손 등 적극적인 대응부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되면서 농촌과 도시간, 농업과 타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음
- 대외적인 측면에서 국제화·세계화의 전개, 정보화와 산업기술의 변화, 여가시간의 증대, 삶의 질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방자치 강화 등의 여건이 급진전되고 있고,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육성발전과 지방분권의 추진, 고령사회로의 진행, 환경문제와 건강문제의 관심고조 등 청정지역은 21세기 새로운 개발 거점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음



<그림 3-45>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 따라서 지역주민의 개발수요에 정확히 대응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새로운 지역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농축산 자원을 활용한 고 부가가치 산업 육성계

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고창군 일원에 도로변 경관림, 산림 휴양타운, 소나무 경관농업지구 등을 조성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본 사업의 강점으로는 고인들의 유네스코 유산 지정과 선운사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산재, 골프장 등 다양한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개발투자 추진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대도시권으로부터 접근성이 향상
- 기회요인으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서해안 지역의 관광수요 증대 및 새로운 국민관광 및 녹색관광 중심지의 필요, 고창~남원~대구, 고창~순천~부산 등 연계노선 개발 등으로 영호남간 교류 증대를 들 수 있음

○ 약점 및 위협

- 약점으로는 1차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 편중과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특성화 미비 및 홍보 부족, 지역 자원들의 차별화와 종합적인 연계 미흡, 급속한 노령화에 의한 지역 활력 저조 등을 들 수 있음
- 위협요인으로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 편제, 정읍~광주권과 근접하여 고창지역 생활권 분산과 주변지역의 산업과의 연계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와 주변 여건을 조성하여 도의회나, 시의회 등이 앞장서서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
- 또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응전략을 구성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 조성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사업과 일치하며 대 중국 물류거점 유통망 필요성에 따라 국비유치가 용이하며 상위관련계획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50>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사업의 투자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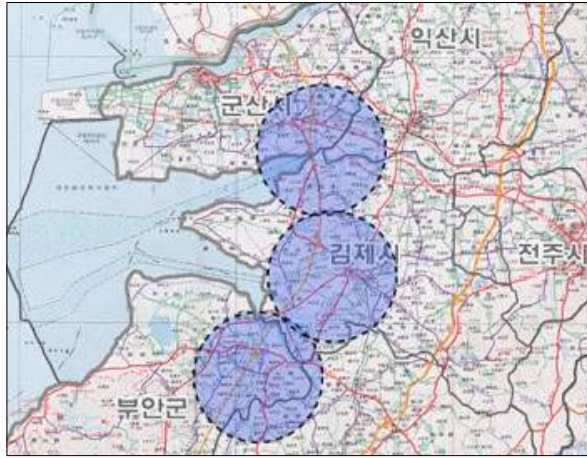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2008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사업시작	사업추진	완성	
사업비	총계	540	108	378	54	약 3년
	국비	540	108	378	54	

4-2. 오릿쌀 가공 집산단지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대외적으로 WTO 농산물 재협상에서 쌀 개방을 대폭 수용하였고 한-칠레 FTA가 체결됨에 따라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대내적으로는 신세대의 식생활변화로 인해 쌀소비가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어 쌀개방과 쌀소비 감소로 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 이러한 대내외적 영향을 타개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쌀을 가공하여 경쟁상품으로 특화하여야 하며, 특히 농도인 전라북도는 쌀생산에 의한 농가수입이 농가의 95%을 차지하고 있어 쌀을 상품화하지 않고는 농업 경쟁력을 지켜 나갈 수 없음
- 오릿쌀³⁰⁾은 소화가 잘되고 위에 통증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밥맛도 고소하여 영양미로 적격이고, 오릿쌀로 미음, 죽, 비빔밥, 된장, 고추장, 닭죽, 빵, 과자, 음료, 술 등과 그 외의 인스턴트식품 등을 만들어 지역의 축제나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한다면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전북은 쌀농사 위주의 농가가 많아 오릿쌀의 생산 및 수요가 늘어날 경우 지역에 커다란 수익을 안겨줄 특산물이 될 것임

30) 오릿쌀이란 80% 여분 벼알을 솥에 넣고 삶은 후 꺼낸 다음 말려서 벼 껍질만 살짝 벗긴 쌀을 말함



<그림 3-46> 오릿쌀 가공 집산단지 조성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차원 정책에 부합하여 정책적 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식생활변화에 따른 건강식품 소비가 증가하므로 오릿쌀의 판매량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평야 지역에서 직접 생산 가공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우수함
- 기회요인으로는 농산물개방화에 농산물 특화산업으로 농림부의 국비유치가 아주 용이할 것으로 예상

○ 약점 및 위협

- 약점으로는 농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함
- 생산량에 따른 판매의 수요예측이 불분명하여 생산농가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량 수매에 따른 위협요인이 존재
- 위협요인으로는 외국에서 오릿쌀을 생산하여 수입할 것이 우려

□ 세부 추진계획

- 주요사업은 오릿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정미 가공시설을 집적하여 생

산하도록 함

- 농민들을 교육시켜 오릿쌀을 재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농민교육비와 생산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
- 사업 추진방안으로 오릿쌀이 건강식품임을 지역의 연구기관에 의뢰해 증명하고 오릿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을 추진하여 오릿쌀을 상품화 함
- 이를 바탕으로 오릿쌀이 건강에 좋고 쌀 수입개방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을 중앙부처와 국민들에게 홍보
- 본 사업은 WTO에 따른 농산물 개방에 대한 농림부지원 사업에 부합하며 상위 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51> 오릿쌀 가공 집산단지 조성사업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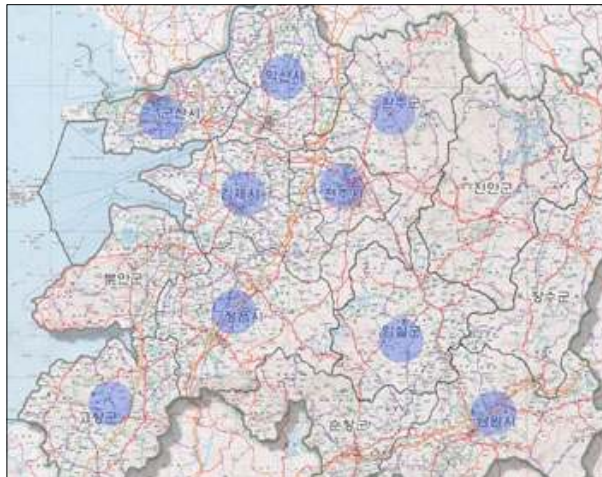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2007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농가지원 및 농민교육	오릿쌀재배실시 및 시설건설, 쌀가공단지, 판로개척	
사업비	총계	600	60	540	약 3년
	국비	600	60	540	

5. 교육복지 사업

5-1. 실버피아(Silverpia) 건설

□ 사업의 필요성

-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대비 현재 7%에서 2019년에는 14.4%, 2026년에는 20%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북 도내 4년제 1개 대학과 2년제 10개 대학 등 21개 대학에 주택, 요양, 농장, 체육, 테마공원 등 노인들의 종합복지 시설과 대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춘 미래형 노인 커뮤니티 유토피아를 조성하여 노인, 장년, 청년의 조화된 미니 사회를 형성함
- 또한 능력있는 노인들의 자원을 대학 강의, 캠퍼스 정화, 급식 농산물 생산 활동 등에 활용하고, 대학에선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잉여대학시설을 적극 활용, 대학 및 구성원들의 봉사 기회 제공, 대학 중심 학·관·산·민·지역혁신체제의 구축 강화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사회적으로는 한계에 이른 건설 산업의 재점화, 실버피아 운영에 따른 일자리 다수 제공, 세계적으로 실버산업 관련 다양한 업종 개발 및 선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그림 3-47> 실버피아(Silverpia) 건설

- 이러한 사업의 실례로 최근 부동산 미분양 추세속에서도 경기도 용인에서 명지 건설이 명지대와 연계해 평당 670만원의 고가 실버타운을 분양해 대성공을 거

두었음

- 전북은 고령인구 비율 전국최고, 학생수 부족 현상 전국 최상위권, 대학마다 시설 및 인력 과잉상태(병원, 체육, 농장, 강의실과 교수진, 자원봉사 등 활용 충분)로 본 사업이 적합한 지역이다. 실제 김제시에서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해 성공적인 운영 중임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이사업의 강점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에 부합되며 전라북도의 청정지역에 알맞은 사업임
- 본 사업이 정착되면 타 시도에서 노인층 인구의 전북 유입과 함께 자녀, 손주 등도 도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고, 더불어 전북 경제의 주력 산업인 건설업의 활성화, 실버피아 관리 인력 창출로 청년실업 감소, 장수, 식품, 의료 등 실버산업의 연구 중심도시로서 부상 등의 효과 기대
- 기회요인으로는 노령화시대에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전북지역에 가장 알맞음

○ 약점 및 위협

- 약점으로는 전라북도가 타 도보다 늦게 시작하여 자원배분의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
- 위협요인으로는 이미 시작한 실버타운보다 경영노하우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관·학·산·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 시·군 자치단체 및 대학별 특성을 파악하여 타당성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에 상정한다. 현 참여정부는 2005년 예산 중 국민보건복지 분야에 집중 배정하고 있으며 37조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음
- 대한노인회와 공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주체를 해당 대학 또는 거도적으

로 전북도 산하에 복지법인을 설립해 종합적으로 운영함

-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과 일치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52> 실버피아 건설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2007년	2008~2009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3개소건립	8개소건립	10개소건립	
사 업 비	총계	2,100	250	760	1,090
	국비	1,050	150	400	500
	도비	210	20	60	130
	시,군비	210	20	60	130
	민자 등	630	60	240	330

약 10년

5-2. 카이스트 전주캠퍼스 설립

□ 사업의 필요성

- 광주에는 광주과학기술원, 대전에는 카이스트, 경북에는 포항공대가 있으나, 이에 반해 전북에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없어 전북과학기술대학의 설립이 시급함
- 산학연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간에 유통되는 정보의 질과 양, 기술·경영, 정보·판로 등의 경영 자원을 보완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합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지적 클러스터는 새로운 지식의 창조, 지식에 의한 활력의 창출, 지식에 의한 풍요로운 사회의 창출 등에 의하여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임
- 미국의 경쟁력은 대학에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임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몰려들어 기업을 창업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향해 뛰고 있기 때문임
- 최근 세계 명문대학의 경영대학원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 특혜를 준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임
- 중국의 경우 중국 교육부와 선전시정부가 공동 건설하는 선전대학타운이 최근

정식 착공됨으로써 선전 학생들이 현지에서 명문대에 입학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전북 국제과학기술대학 설립은 그리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설립 가능함



<그림 3-48> 카이스트 전주캠퍼스 설립

- 그 방안으로 일단 대학원을 먼저 설립해 놓고 교수는 카이스트나 광주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등 한국의 우수한 교수진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차츰 외국의 교수를 대폭적으로 늘려가면 국제대학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음
- 기존의 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대학이 아닌 세계의 우수 인재들을 유치할 국제 대학이 필요
- 기존의 대학을 변형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개념을 달리하는 새로운 대학을 만들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여 한국에서 창업하고 가르치고 생활해 나가는 대학이 필요함
- 앞으로 이 대학이 성공하면 중국의 중관촌이나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은 효과를 기대
- 이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과 대전의 카이스트의 중간에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을 추진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교육인적자원이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유능한 인재를 사용할 수 있어 활발한 산·학 협동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젊은 인재들로 인해 고령화된 사회속의 활력 요소가 된다는 점 등

○ 약점 및 위협

- 우수인재를 이끄는 교육여건이나 제반사항이 열악한 상태이며,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대학의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 어려운 재정현실에 놓인 지역 대학에 위협의 요소가 된다는 점, 졸업 후 대도시로의 인재 유출의 우려 등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와 주변 여건을 조성하여 도의회나, 시의회 등이 앞장서서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
- 또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응전략을 구성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
- 본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 5개년계획의 인적 자원 육성정책에 부합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53> 카이스트 전주캠퍼스 설립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캠퍼스설립위원회 구성	캠퍼스설립	캠퍼스개교	
사업비	총계	1,000	900	100	약 3년
	국비	1,000	900	100	

6. 환경 사업

6-1. 새만금 담수호 수질 관리를 위한 실시간 원격관리 환경경보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새만금 담수호 조성은 주변에서 유입되는 일부 수질 항목 지표만을 이용한 오염원 감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일 항목으로 구성된 현재의 오염원 배출관리로는 생물학적 다양성유지와 생태적 및 환경 위해성 등을 진단, 평가, 개선방안 제시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따라서 선진국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질관리 기법과 더불어 생물을 이용한 생물경보시스템을 포함, 실시간 원격관리가 가능한 환경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생물경보시스템은 현지생물들을 지표 (Bio indicator)로 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될 경우 실시간에 즉각 감지, 경보를 발령하여 독극물 또는 오염물질의 수계유입시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진화된 환경관리 시스템임



<그림 3-49> 새만금 담수호 수질 관리를 위한 실시간 원격관리 환경경보시스템 구축사업

- 특히, 새만금과 담수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 환경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또한 앞으로는 환경관리시스템도 무인 자동 운전 및 원격 관리 체계 구축에 의한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경제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청정 전라북도의 친환경적 생태계 관리 시스템을 실시간 쌍방향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 환경 관리, 감시시스템 구축의 추진이 필요함
- 따라서 새만금의 담수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염원 관리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감시 관리하고 유해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적 실시간 환경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 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꼭 필요한 이유는 동북아 및 세계적 관심인 새만금 사업은 국가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선진형 친환경 개발 및 실시간 원격관리 환경 정보시스템구축은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함에 따라 국책과제로 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 사업 SWOT 분석

- 강점 및 기회
 - 전라북도의 새만금 유역에 선진형 친환경관리 구축사업이 시행되면,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민간 및 전문가들의 반대가 해결 될 것이며, 선진형 첨단 환경관리, 제어 기술과 시스템 기술들이 적용됨으로 전문가의 고용효과와 타 지역 및 관련 국가와의 연계망이 형성되어 막대한 경제적 상승 기대
 - 반면 새만금 간척지 유역을 선진형 친환경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전라북도가 동북아 및 세계에서 인정받을 것이고, 한국 및 여타국가의 유사지역의 행정적 관리 시스템 및 친환경 개발 관리 시스템 기술 등을 수출 및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회요인임
- 약점 및 위협
 - 선진형 전문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함
 - 국책과제로서 진행이 되어도 전라북도 자체 관리 조직이 필요함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안으로 선진형 새만금 친환경 건설사업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것으로 전라북도와 농업기반공사 등이 사업예산의 일부를 부담하고, 국책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
- 국책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및 새만금 주변 시·군의 행정적 역할로서 새만금의 친환경 창조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비(지방비 참여분)의 일부를 사용하여 통합적 실시간 원격관리 환경경보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 또한 전라북도와 관련 시, 군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 추진을 위해 선진기술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대책과 일치하며 환경부의 사전오염원 방지사업에 부합하며 상위관련법의 제약여건은 없음

<표 3-54> 새만금 담수호 수질 관리를 위한 실시간 원격관리 환경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2007년	2008~2009년	총사업기간
추진계획		3개소건립	8개소건립	10개소건립	
사업비	총계	2,100	250	760	1,090
	국비	1,050	150	400	500
	도비	210	20	60	130
	시,군비	210	20	60	130
	민자 등	630	60	240	330

전발연 2004-R-06

전라북도 「대형 국책사업」 발굴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4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8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6 KT빌딩
전화:(063)276-2060 팩스:(063)276-2069

홈페이지: www.jd.re.kr/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